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이달의 편지  
초보농사꾼의 봄맞이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꿈을 실은 재봉소리

2015 April 04







## 꿈을 실은 재봉소리



대구광역시 동구 방천시장의 강정숙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에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감의 고장인 경북 청도. 청도 출신의 여성시대 가족 강정숙 씨는 어린 시절 감잎으로 인형 옷을 만들곤 했다. 한여름 진초록의 감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늦가을 붉디 붉은 감잎으로 블라우스를

만들었다. 1남 4녀의 가난한 집 막내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이기도 했다.

깊은 산골의 심성을 닮아 성정이 맑은 산골소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소달구지를 가지고 짐을 옮기는 일을 했던 아버지는 그해 소를 잃어버렸다. 생계수단을 잃은 아버지 앞에서 고등학교 입학하겠다고 우길 수 없었던 소녀는 오빠 친구의 소개로 부산에 있는 양장점에 취직을 했다. 그때 나이 17살.

연둣빛 어린 감잎 같은 17살 소녀는 객지 잠을 자고 타지 밥을 먹었





다. 밤이면 재단판 위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다. 낮에는 옷감을 세울 때 필요한 풀을 췌고, 마무리 실밥을 땀다. 모두가 퇴근한 밤에 혼자 재봉 연습을 했다. 엽련한 눈썰미로 낮에 어깨너머로 익힌 재봉기술을 밤마다 혼자 익혔다. 손끝에서 옷 하나가 만들어지는 재미에 까만 밤이 희뿌연 새벽이 되는 줄도 모르는 나날들이었다.

그리고 딱 일 년쯤 되던 때, 마침 재봉사가 필요해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손을 들었다. 재봉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네가 무슨 재봉 일을 하겠냐?'는 시선을 뒤로하고 재봉틀에 앉아 재킷 하나를 그 자리에서 똑딱 만들었다. 그런 기술을 익히려면 삼사 년은 죽히 걸리는 데 일 년 만에 재봉 일을 모두 익혀버린 것이다. 그 후 기술자로 대접을 받으며 여기저기 불려 다녔다.

은은한 향을 풍기는 뽀얀 감꽃 같은 나이 22살에 결혼을 했다. 재단사였던 동갑내기 남편은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부부는 서울에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 봉천동에 등지를 틀고 여성복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 매일매일 신나게 재봉틀을 돌리며 집도 한 채 장만하고 서울 사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산다는 게 종잡을 수 없는 일인지라, 맑은 날인가 싶은 날 느닷없이 비가 내리듯이 강정숙 씨 삶에도 아이엠에프라는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헛수고였다.

서울에서 발붙이는 걸 포기하고 자리 잡은 곳이 대구다. 섬유산업의 본고장인 대구라면 그래도 일거리가 있겠다 싶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서, 다행히 대구에서는 일거리가 있어 남편도 아내도 취직을 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 아이들 먹을 밥을 지어놓고 출근해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리다 치킨 몸으로 퇴근을 했다. 물량이 많은 날이면 야간작업을 밥 먹듯 해야 했다. 그 사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제 앞가림을





하기 시작했다. 큰아들이 장가를 가고 큰딸도 취직을 하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 하고 싶었던 수선가게를 겸한 양장점을 대구 방천시장에 냈다.

딸과 함께 며칠을 머리를 짜내어 '재봉소리'라는 간판도 딱하니 걸었다. 이제 남의 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연 가게다. 재래시장이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대구 방천시장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옆에 앉아 있는 덕분에 요즘 다시금 활기를 찾은 곳이다. 영원한 가객 김광석을 기리는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하다.

온 동네가 예쁜 벽화로 가득한 골목길 사이,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주 고객은 수선 손님들이지만 맞춤옷을 원하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요즘은 청도에 사는 고향 친구가 감물을 들인 천을 보내주고 있어 그걸로 멋진 옷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35년 차 기술인이지만 천연염색으로 물든 고운 천을 만지는 손길엔 다시금 긴장감이 돈다.

“예쁘게 옷 고치는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이 천연염색 원단으로 멋진 옷을 만들어 보급하는 게 꿈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우리 자연환경에도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재봉 소리와 함께 늙고 싶어요.”

감염으로 인형 옷을 만들던 소녀는 이제 감물들인 옷을 다루는 기술자가 되어있다. 감꽃 닮은 소녀는 튼실한 열매 같은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재봉비늘 한 땀 한 땀에 스민 성실을 바탕으로 정성껏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고단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으련만 해마다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꽃들이 온 동네를 환하게 해주는 것처럼, 강정숙 씨는 밝은 웃음과 맑은 말씨로 앉은 자리에서 주변을 환하게 해주고 있다.





4월의 여성시대 우체통은 가슴 아린 사연들이 가득합니다. 봄이 왔어도, 온 동네가 만발한 꽃밭인데도, 화창한 햇살이 눈부신데도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다는 분들의 사연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4월은 '세월호'라는 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시겠지만 오늘이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고 헤아려 본다면 그 말은 무색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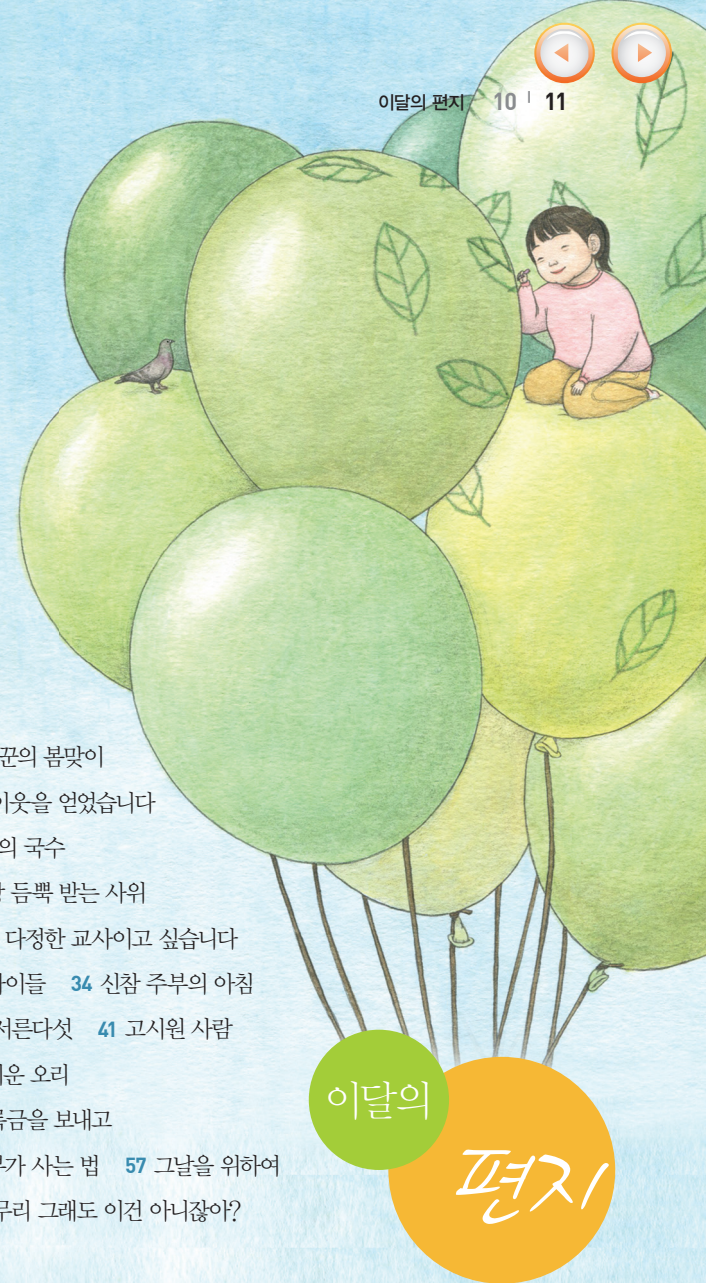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인간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를 한다면 여성시대 가족들이 1등일 겁니다.

여성시대 가족들의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과 '인정'이 그 안에 따뜻하게 들어 있습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의 인정은 '공감'에서 오는 거겠지요.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생각하고,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감지수 또한 여성시대 가족들이 1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일, 그게 사람의 도리라 넌지시 깨우쳐 주시는 여성시대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달의 편지, 6번째 사연은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의 어머니인 이혜선 씨가 보내 주신 편지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세월호 가족들을 봄 꽃 바라보듯이 한 번 더 생각하는 4월이었으면 합니다.



- 12 초보농사꾼의 봄맛이
- 14 팔 팔고 이웃을 얻었습니다
- 20 9살 아들의 국수
- 23 장모 사랑 듬뿍 받는 사위
- 26 따뜻하고 다정한 교사이고 싶습니다
- 30 단원고 아이들 34 신참 주부의 아침
- 38 내 나이 서른다섯 41 고시원 사람
- 46 오빠와 미운 오리
- 49 아들 등록금을 보내고
- 54 우리 부부가 사는 법 57 그날을 위하여
- 60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견 아니잖아?



**부** 슬부슬, 촉촉이 봄비가 내립니다. 어릴 적 입춘이 지나고 비가 내리면 엄마는 중얼거리셨어요. “해토비가 오는구나. 봄이 오긴 오는구나.”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초보 농사꾼이 되어 농사를 지어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겨우내 얼어 있던 땅의 그늘에는 아직도 눈과 얼음이 섞여 있어 봄이 오긴 올 건지 촉촉이 느껴졌는데 녹녹하게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내리는 비는 속까지 얼어 있는 땅을 녹여줍니다.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 간다며 첫차 타고 나가는 딸, 밥 먹어야 버틸 것 같다며 아침 챙겨 먹는 딸아이를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전철역까지 차로 바래다주고 오는 길, 창문에 부딪치는 빗방울 소리가 상쾌합니다. 포장도 하지 않은 흙바닥인 마당에 맨발을 디디니 폭신하면서 미끌미끌한 흙이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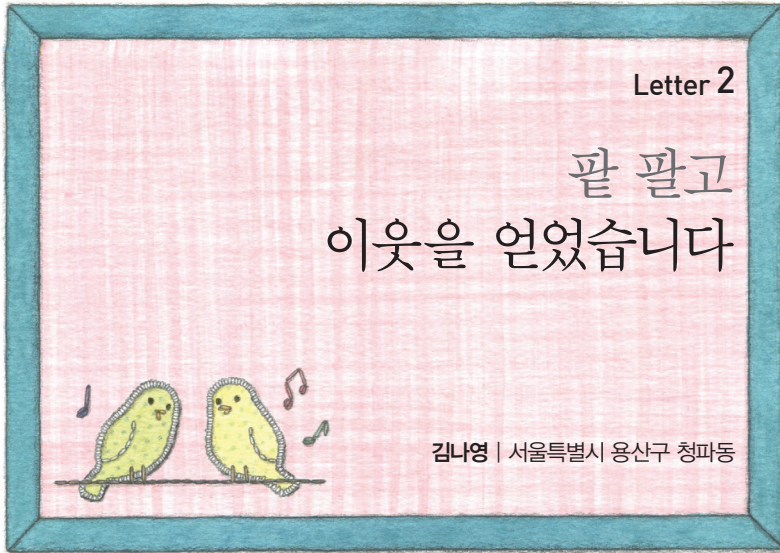


비, 방사능비라 맞으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잠깐 서서 오랜만에 비를 맞아 봅니다.

땅속에서 땅벌레들이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온갖 풀씨들이 이젠 움직일 때가 됐다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저도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농사를 시작하는 기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거름 실은 차들이 바빠 다닐 겁니다. 아직도 서툰 농사일이지만 완전초보 단계는 지난 듯합니다. 남편과 저는 벌써 밭에다가 거름도 다 퍼 놓았고, 뭘 어떻게 심을 지 계획도 세웠으니까요.

날씨도 여러 가지 상황도 점점 더 농사일을 힘들게 만듭니다. 올해는 어떤 일로 힘이 드러나 걱정도 되지만 봄은 늘 저를 설레게 합니다. 이렇게 속으면서 사는 거겠지요?

비가 그치면 밭에 나가 봐야겠어요. 혹시 냉이를 캘 수 있으려나 싶어서요. 하우스에서 재배하지 않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냉이! 이곳 파주는 유난히 촉거거든요. 그 추위를 이겨낸 냉이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20일, 18년째 심부전증을 앓고 계시는 친정엄마가 병원 정기검진 겸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막내딸이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병원에 6개월에 한 번 올라오시는 게 유일한 서울 나들이시죠.

동생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주말에 해먹을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빨리 걷지 못하는 엄마가 힘들까봐 쉬엄쉬엄 카트를 밀고 있는데, 엄마가 멈춰 서더니 곡물 진열대 쪽으로 가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동지'라서 적두콩, 햇팔이 나와 있었습니다. 세일 중이었습니다. 콩 2kg에 1만5천 원, 국산 팔 2kg은 1만3천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팔 사게? 아~ 동지 죽 끓여보게?”

간만에 엄마 팔죽을 먹을 생각하며 정말 사볼까 했는데 엄마의 표

정은 어두웠습니다.

“팔을 뭐 하러 사야? 내 팔도 많으니... 올해 동지는 집에서 팔죽 안 쓰는 애동지여. 먹고 싶을 때 늦게 써 묵어도 된다.”

뭔지 모르지만 못마땅한 표정에 웃음도 없고, 말끝도 흐리시고, 기분 언짢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팔 보더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암시랑타 안해. 팔 많으니까 사지 말라고 한 것이제. 가자” 하며 발을 떼더니 다시 돌아서셨습니다.

“저거이 2kg면 한 되인데, 깎아서 1만3천 원에 판다는 것 맞냐?”

“응, 곧 동지라 할인 중인가 봐. 근데 왜? 엄마 팔 팔 거 있어?”

“봐라, 시상에. 내 팔은 저것보다 훨씬 고와야. 내가 꼬짜, 주깁이는 돈보기 쓰고 올 겨울 내내 골라 추려 냈는디... 어째 내 팔은 동네 들리는 장사치들이 2kg 한 되를 7천 원도 안 줄라고 한다. 내 뒷막은 양도 좋은디, 저것에 비하겠냐. 내 야도 여그서 저렇게 팔아봤으면 좋겠다.”

엄마에게는 애지중지 수확해서 곱게 말리고 추려놓은 햇팔이 여러 포대 있으셨나 봅니다. 겨울철 동네로 찾아오는 중간매입상들이 그 팔을 되 당 6천 원을 제시하며 흥정하자 뿔이 나서 다 직접 해먹을 거라면서 안 판다고 쫓아내셨답니다. 못 배워서, 가진 것 없어서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며 살아 왔는데, 늙어 심통만 느는지 이번엔 마음이 그제 안되더라고요.

그마저도 다 자신의 나이 탓을 하는 엄마가 안 돼 보였습니다. 침울해진 엄마를 달래 볼 요량으로 “그 사람들이 그랬던 말이야? 팔지 마, 팔지 마! 내가 인터넷이나 동네 팔죽 가게라도 가서 알아보고, 내가 팔아줄게” 아이 달래듯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그 인터넷인가 뭐가로 내가 한번 팔아주라. 나는 작년만치로 한 되에 8천 원만 줘도 되야.”

농처럼, 진담 어린 속내를 주고받으며 다시 웃긴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던 마트 나들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본인 땅 없이, 남의 논답, 문중 논답, 선산 관리 조건 등으로 여러 전답을 빌려 그 소작으로 1남 3녀 자식들을 모두 4년제 대학 뒷바라지까지 하셨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농사일로 고생하시는데 별달리 도움 드린 게 없는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엄마의 팔을 어찌할까 하다가 주말에 인터넷 직거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작은 단위로 포장하고 택배 부치고 할 시스템이 부모님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제 월요일 출근길 아침은 비장하였습니다. 주변에 팔이 필요한 떡집 몇 곳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기 때문이죠. 명색이 17년 차 무역회사 과장인데, 이까짓 것쯤이야! 마음은 비장했으나 저는 큰길가 떡집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떡 가게에 들어서서, 출근 길 아침을 대신할 떡 한 팩 사는 것 마냥 떡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 올리고 온화해 보이는 여자 사장님께 “사장님, 혹시 여기 떡집에서는 팔을 직접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체인점처럼 공급처가 있나요?” 물어보았죠.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곡물상 통해 들어오기도 해요.”

“사장님, 국산 팔도 사시나요? 사실 제가 팔을 좀 팔고 싶어서요. 시골에서 엄마가 팔 농사로 140kg 정도 수확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쪽 중간매입상들이 부르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속상해서 못 팔고 계시거든요. 직거래라면 좀 더 나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말은 막히지 않고 잘했으나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중요하겠죠” 사장님은 관심 있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도매시세는 알지도 못하고요, 그저 소매로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가격을 보긴 봤는데 그 정도 받고 싶긴 하지만 저희 엄마는 작년에 파셨던 대로 1kg에 4천 원만 받아도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남기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떡집 한 곳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뒤에는 나름 유명하다는 팔죽집에도 전화해 물어보고 연락처를 남겼지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겁니다. 그 간에 제가 들은 것은 요즘 떡집이든 죽집이든 중국산 팥을 많이 쓰고 있고, 국산 팥 값이 많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엄마에게도 이 소식들을 전하면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낮은 가격이라도 내다 파시라고, 내년부터는 작은 단위로 포장해서 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이틀 째 되던 날, 맨 처음에 팥 팔아보겠다고 들어갔던 그 떡집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국산 팥을 1kg당 4천 원만 받아도 좋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지금도 그 가격에 파실 생각 있으신가요?”

소매 직거래 판로가 없는 엄마에겐 천 원만 더 받아도 좋은 가격인 지라 흔쾌히 140킬로그램 모든 팥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엄마의 노고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시세’가 서운했습니다. 팥 조금 올려놓은 팔빙수 한 그릇도 만 원 받는 시대인데 말입니다.

어쨌건 거래는 성사되었고 아버지는 포터트럭으로 360km 달려 물루랄라 직접 배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직접 배송까

지 해주신 저희 아버지에게 팔 값에 몇 만 원 더 보태서 셈을 치러 주시고, 갖가지 맛있는 떡도 한가득 담아 주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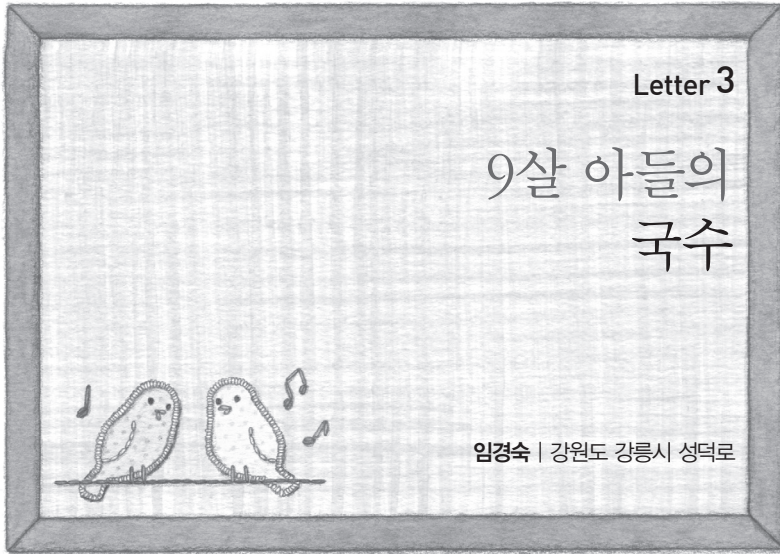
이렇게 팥 장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제 저녁, 그 떡집 사장님께서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팥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구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시는 함평이, 함평터미널에서 가깝나는 간단한 질문이었고, 마침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만 하고 싱거은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거냐. 내가 보낸 팔으로 떡 한 거라 맛 보여 주고 싶다고, 떡을 다 해서 보냈어야. 오메 살다보니 이런 분들도 다 있다. 내 팔 싸게 사서 가격 뛰어 이문 많이 남긴 장사꾼들은 몇 년을 알고 지내도 생전가야 고맙다 소리 안하는디, 이 양반들은 내 팔 좋다고, 떡 맛 좀 보라고, 여그까정 떡을 해 보냈다. 이런 사람 내 생전엔 못 봤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뭐라 할 말이 없다. 우리 딸 덕에 내가 팔 팔고, 내 팔한테 대접받는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 격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 모락모락 나는 떡을, 좋은 팔 주셔서 고맙다고 맛 보여 주고 싶다고 직접 용산에서 강남의 호남고속터미널을 찾아가 함평 가는 고속버스에 실어 보내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엄마는 100만 원 받고 파는 것보다 더 보람 있다고 하십니다.

퇴근길에 딸기 한 상자 사서 인사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 사장님에게 팔 팔면서 저는 좋은 이웃을 얻었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انسان 이렇게 하는 것 인가 봅니다. 마음을 주고, 마음을 담고.



저는 이번에 중학생이 된 아들과 초등 3학년이 된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 녀석을 보니 불현듯 잊고 살았던 과거가 떠올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4년 전 일입니다. 아들 은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죠. 서른에 첫아이 은수를 낳고 다음 해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한 저는 제법 돈을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PC방과 24시간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알바생도 7명이나 고용한, 나름 사업가라면 사업가였죠. 항상 멀리로 발령받아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 두 아이를 돌보며, 신명나게 장사를 했습니다. 물론 수입도 급여생활자인 남편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런데 30대에 얻은 성공이라 제가 초심을 잃었나 봅니다. 지인의 말만 믿고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지요. 사람이 잘 될 때는 경매며 주식이며 모든 것이 돈이 되더니, 그 사기 건을 해결

하려고 주식을 팔 때는 반토막 난 값으로 급하게 팔아야 했고, 아파트도 싼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울릉도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 모든 일은 혼자 해결을 해야 됐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날리고 가게를 다 청산하고서 약 한 달 간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달 간, 저는 제 삶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매일 누워만 있었고 눈물만 흘린 것 같습니다. 아홉 살 아들이 학교를 어떻게 갔는지, 5살 난 딸은 어린이집 버스를 어떻게 타고 갔는지 밥은 먹여 보냈는지 이런 일상들이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제 끼니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에 없고요. 아마도 심한 우울증이 왔었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 여쯤 지난 어느 아침, 아들이 머리맡에 앉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국수 끓여 체에 받쳐 놓았으니 간장에 비벼 드세요. 지수랑 저는 먹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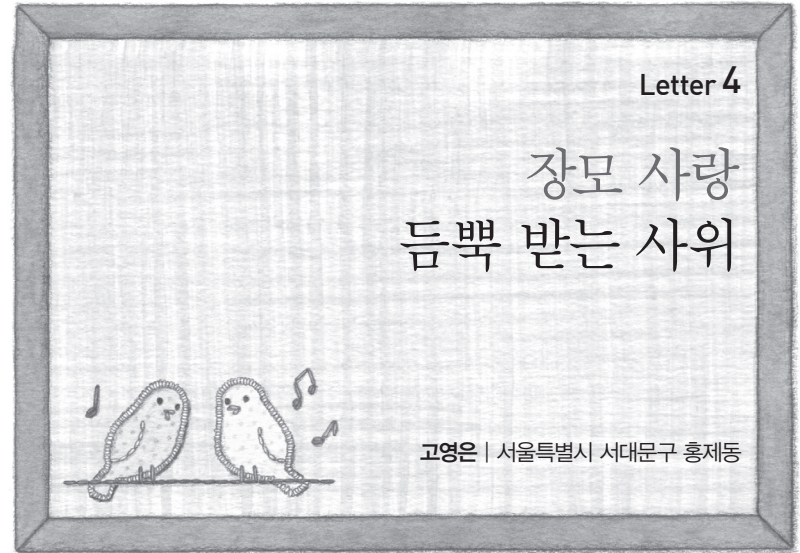
그때 순간 전 멍 했지요. 아들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뜨거우면서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 전 기억인데 지금도 눈물이 흐르네요.

그 당시 아들은 여동생 지수를 밥 먹여 어린이집을 보내고 학교 가고, 또 마중 나가는 일련의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누워 울고만 있는 저를 보았겠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죄스러워 한참을 울다가, 체에 놓여 있는 아홉 살 아들이 끓여 놓은 국수를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 주변을 돌아보니, 많이 힘들었을 은수가 보이더군요. 선생님도 아이가 많이 어두워졌다며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고, 주변 은수 친구 엄마들도 은수가 많이 슬퍼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끓인 그 국수는 저에게 다시 씹씹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쓴 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지금은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필요 없고, 밤늦게 갑자기 가게 일로 뛰어나갈 필요가 없는 일이지요. 이제 아이들이 집에 오면 항상 엄마인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수야, 엄마는 가끔 사는 게 고달프다 싶을 땐, 네가 끓여준 국수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낸단다. 이렇게 힘들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추억을 주어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내 딸 지수도 사랑해.



**남** 자친구를 처음 인사시키자, 엄마는 “손석희 같은 남자가 좋다더니 근처도 안 갔네?” 하시고, 오빠는 “니 평소 말하던 이상형이 아니네? 너무 뜻밖이다” 놀렸고, 아빠는 서운하신지 딸이 32살이 되었는데도 “뭐가 급하다고 서두르니? 찬찬히 시간을 두고 골라도 늦지 않을 텐데...” 하시며 가족 모두 신랑감이 흡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몇 달 뒤, 엄마가 서울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골로 못 가고 서울에 계셔야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돼 전화를 드렸더니 “나 지금 데이트해” 하시더군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랑?” 깜짝 놀라 문자 엄마가 웃으며 “젊은 총각이 와서 드라이브 가자기에 나왔다. 여기 어디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니 “어머니랑 빈대



떡 먹어”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점수 딸 기회다 싶어 회사에서 조퇴하고 엄마 모시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일년도 안 돼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 혼자 시골 계시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계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랑이 먼저 말을 해서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랑이 “어머니, 내일 모레가 정월 대보름인데 오곡밥 안 하세요?” 묻더군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저 오곡밥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돼요?” 신랑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사위가 먹고 싶다고 내놓고 얘기하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 중국산 재료는 째째하고, 국산으로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엄마, 내가 재료값 드릴 테니 좋은 길로 사다 주세요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사위가 장모 눈치 볼 게 뻔한데 해달라고 하겠어.”

엄마는 마지못해 오곡밥을 하셨고 다른 가족을 위해 흰밥도 준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곡밥은 안 먹고 흰밥을 먹자, “자네 오곡밥 먹고 싶대서 일부러 했는데 어째 하나도 안 먹어? 자네 모친이 해주시는 것만큼 맛이 없어?” 하자 신랑은 “저는 하얀 밥이 더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오곡밥 해달라고 했는가?”

“사실은 어머니 드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병원 계실 때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을 말씀해주시던데 그중 오곡밥과 보름나물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기에…”

알고 보니 올 신랑 엄마께 오곡밥 해서 드시라고 하면 일부러 안 하실 것 같아 거짓말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작년 여름이었어요. 신랑한테서 “장모님한테 저녁 얻어먹으러 감. 친정으로 뽕~”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혼자 잘 계시는지, 고칠 곳은 없는지 살펴드려야 한다며 엄마 집에 자주 가는 신랑 문자를 받고, 저도 엄마 집에 갔는데 신랑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박 서방 엄마 집에 온다고 연락 왔던데, 아직 안 왔어?”

“아까 왔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여태 안 나온다.”

“이 사람 배탈 났나? 신랑, 배 아파?”

문을 두드리며 물었더니 “아니” 하기에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세면대 뜯어놓고 물 내려가는 곳 청소를 하고 있더군요. 올 신랑 좀 오동통한데 양복바지 입고 좁은 화장실에 쪼그리고 작업을 했으니 오죽이나 불편했겠어요. 그걸 본 엄마가 “이 사람아,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땀범벅이 된 사위가 안쓰럽다며 얼음주머니를 해다 주시며 “자네는 짧은 사람이 못 하는 게 없는가? 전번엔 전기 스위치도 다 고치더니” 하니 “전파상집 아들이라 뭐든 잘하니깐 언제든 부르세요. 어머니, 이제 물 잘 내려가요”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더군요.

엄마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자네 전파상집 아들이었어? 안 그래도 물이 잘 안 내려가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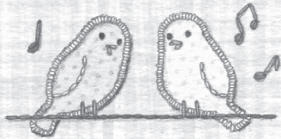
“아니야, 엄마. 박 서방이 괜히 하는 소리야. 아버님 평생 건어물 가게 하셨어.”

그러자 올 신랑 싱글벙글 웃으며 “어머니, 얼른 밥 주세요. 된장찌개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알았어. 금시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리게.” 엄마는 주방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 못마땅해 하시던 우리 엄마와 눈치 보며 서먹했던 신랑이었지만 이제는 장모 사랑 듬뿍 받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 Letter 5

따뜻하고 다정한  
교사이고 싶습니다

김교훈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우리 아버지는 생활력이 없으셨다. 생활비 마련에는 큰 관심이 없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날그날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그뿐 아니라 알코올에 의지하며 사셨고, 때론 폭력도 휘두르셨으며 언제나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다. 어린 시절 내 눈에 비친 아버지는 놀부 같은, 선과 악이 극명하게 갈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께서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다. 그나마 잡초 같았던 내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주었던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희생적인 가족 사랑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장날이면 육성회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골에서 키운 채소류와 토마토, 참외, 호박을 내다 파셨다. 그때 나는 채소와 과일을 손수레에 차곡차곡 실어 버스종점까지 운반해 드리는 일을 도



왔다. 학교 등교시간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짐을 실어다 놓고 다시 집으로 달려와 밥을 물에 말아서 빨리 먹고는 다시 지름길인 산길, 들길, 풀밭 길을 가방을 메고 달려야 했다.

그런 장날,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졸음을 무릅쓰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침에 손수레를 끌고 갈 때 아침 일찍 등교하는 이웃 동네 여학생들이었다.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어떤 날은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날 아침.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의 짐을 손수레에 날라다주고 바로 학교에 갔는데, 버스가 지연되어 약 5분 정도 지각을 했다. 혼이 날까봐 공포에 떨떨떨 떨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옆에 짝꿍이 보이에도 너무 안타까워보였는지, “너 혹시 교회에 다니니?” 하고 물었다.

잠시 후 담임선생님이 나를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러더



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몽둥이로 엉덩이 30대를 때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대로 다 맞았다. 얼마나 아픈지 내 정신이 아니었고, 맞는 동안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교복과 살이 들러붙어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내릴 때마다 딱쟁이에서 피가 다시 나는데, 아픈 것은 둘째고 친구들 앞에서 모멸감을 받은 것이었기에 학교도, 선생님도, 친구도, 세상도 싫어졌다.

집에 돌아와 소꿉을 베고 지게를 지고 올 때도 엉덩이가 아파 불편했지만,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지고 장돌뱅이처럼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어머니한테는 차마 학교에서 맞았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 말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지 않았고, 가족 중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혹시 가족들이 보면 마음 아파할까 봐 몇날 며칠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고 긴 옷을 그대로 입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지금 같으면 모범학생 표창장, 효행상을 받을 이야기인데, 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선생님의 체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때 나는 학생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과 성격까지,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사의 역할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 다음에 내가 교사가 될 경우 학생 편애와 차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사의 편견은 어떤 이유로도 독약이고 편애는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투 또는 사소한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단정지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나는 학교 현장에서 좀 더 그늘진 곳에서 혼자 고민하는 아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못하는 아이들, 잘사는 아이들보다는 저소득층 아이들, 사교

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학습으로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보통 교사가 되고 싶었다.

나는 30년간 교단을 지키며 후세 교육에 작은 힘을 보탤지만, 뒤 돌아보면 여러 면에서 교사로서 부족하고 학생지도에 미숙했음을 고백한다. 젊은 교사 시절 내가 던진 말 한마디나 체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혈기왕성한 의욕만으로 아이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그때 왜 아이들을 그렇게 혼내고, 그런 상황을 넓게 이해하지 못했나?’ 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내 고교시절 엉덩이 30대를 때리셨던 선생님도 용서가 된다. 교사도, 학생도 완전한 인격체의 인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고달프더라도 끝까지 아이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아이를 가슴으로 안아야 한다고 본다. 멋진 양복을 입고 다니는 선생님보다도 늘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는 교사가 더 멋진 교사라고 생각한다.

교사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예를 들면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착실한 학생을 좋아하고 반대로 말썽을 자주 부리는 학생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 그래도 내 귀한 자식이라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 그 폭을 넓혀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도 학생은 차별적 존재가 아니며, 삶의 문제를 털 가진 아이와 더 많이 가진 아이가 있을 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의 엄마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려고 그랬는지 수학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배를 타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당일, 인천 사는 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수학여행 갔어?” 이렇게 물을 때까지만 해도 별 일 아니겠지 했습니다. 배의 90% 정도가 침몰 중이라는 소리에 우리 아들의 성격상 ‘죽었겠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가야 하나, 학교로 가야 하나’ 허둥대다가 주차장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릅니다.

차에 타서도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울고만 있는데 닳선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들이었습니다. 저의 첫마디는 “겁도 많고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왔어?”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그냥

나왔어요. 엄마! 친구도 전화해야 해서 끊어야 해” 그러기에 “응!”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실감이 안 나서 10분쯤 후에 다시 걸어봤더니 아들은 정말 탈출을 했더군요. “친구들은?” 하고 제가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먼저 가라고,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진도체육관에서 해남 한국 병원으로 옮겨가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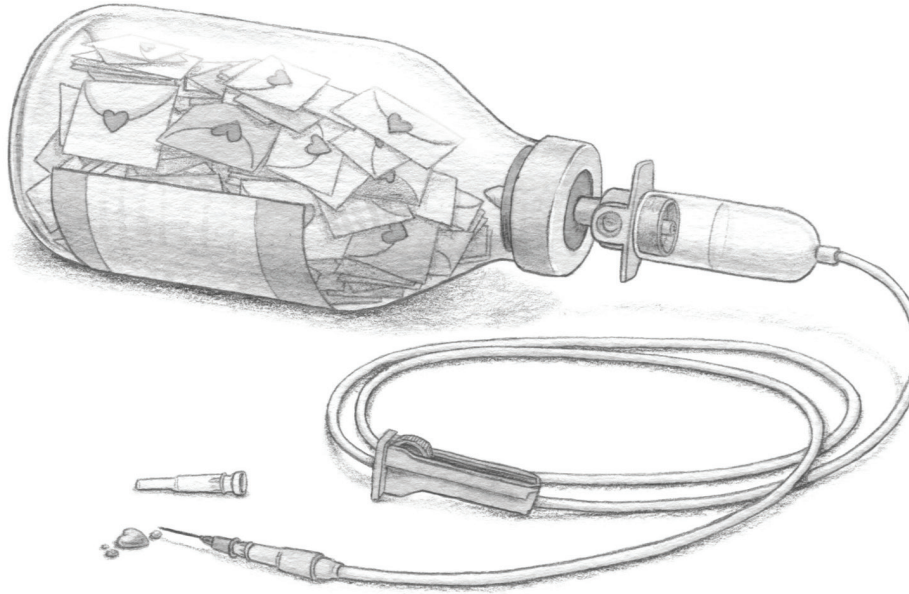
저희 부부는 딸과 함께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되는 줄 알고요. 그러나 탈출한 아이는 고작 75명. 병원마다 뿔뿔이 흩어놓고 우왕좌왕만 하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진도체육관에서 고대 안산병원으로 이송했다는데 우리 아이와 몇몇 아이들은 그곳 병원에 그냥 있었습니다. 해남 한국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안산으로 보내달라니까 서로 미루는 모습에 남편이 화가 나서 “당신들 주체가 어딥니까?”라고 물으니 ‘해양수산부’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당장 여기 아이들도 안산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버스가 오더군요. 그렇게 새벽 2시쯤 고대 안산병원에 도착한 아이들은 기자들한테 또 다시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법도 다양하더군요. 정말 너무 하는구나, 친구를 잃어 마음이 힘든 아이들은 뒷전이고 자기들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언론에 대한 실망은 커졌고, 또한 언론은 제대로 된 기사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SNS를 시작했습니다. 첫 친구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글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부반장이 하는 마지막 부탁이니... 제발 돌아와...> 어떤 친구에게는 <김밥집 가지는 약속 지켜야지!>라는 글을 남겼더군요.





아이들은 링거를 꽂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친구들의 장례식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온 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은 아이가 보는데서 울지도 못하고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2주일. 퇴원 후 연수원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은 친구들이 있는 합동분향소에 들러 분향을 하고, 두 달여의 합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5명의 부모들은 이산가족이 되어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 가는 날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로 언제 갈 수 있어요?” 제가 “합동영결식이 끝나야 되겠지?” 그랬더니 아들은 “그렇겠죠. 근데 엄

마, 나... 학교로 어떻게 가지? 친구들 빈 책상을 어떻게 보지?”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연수원 생활을 끝내고 첫 등교 하던 날, 아이들도 부모님도 오열을 했습니다. 희생된 친구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살아와줘서 고맙다”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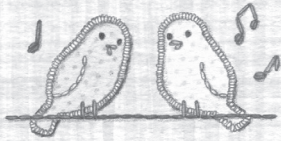
그때만 해도 금방 희생된 아이들을 찾을 줄 알았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종 악플에 시달려야 했고, 내 일이 아닌 국민들은 ‘이제 그만하지’ 그룹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할까요? 저도 방송에서만 보던 일이 제 일이 되어 있더군요.

이 편지를 읽어주실지 안 읽어주실지 모르지만 저희 생존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까지 그만두고 매달려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보상 많이 받고 잘사는 줄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저희는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아이들이 있기에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만이라도 저희 생존 학생들을 격려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밤에 무섭다고 혼자 못 자는 아이도 있고, 울다 지쳐 탈진하는 아이도 있고, 정신과 상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 조카, 동생이다 생각하고 좋은 말만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etter 7

신참 주부의  
아침

이상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지난 1월 16일, 저는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을 했습니다. 선배들의 뒤를 이어 언젠가는 정년을 맞이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리고 퇴임식 날이 왔습니다. 앞서간 선배들 중 많은 분들이 퇴임사를 하며 눈물범벅이 되어 제대로 말씀을 못한 걸 보아온 터라 나는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져 행사를 망치지 않겠다’며 정말 오늘까지 근무하도록 도와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기쁘고 웃는 얼굴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의 공직을 마무리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근무처를 옮기면서도 한번도 공식행사에 나타난 적이 없는 아내에게 퇴임식에 참석했다면 좋겠다고 와 달라 부탁했습니다. 아내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서지 않는 성격이라 행사에 참석은 하지만 단상에 오르는 것은 절대사양이라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만 행사 진행하는 분들의 의견이 퇴임식이니만큼 함께 단상에 오르는 게 좋겠다고 해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퇴임을 축하한다며 둘이 막 지난 사내아이를 안은 큰아들 내외와 미혼인 막내아들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아~ 이제 정말 공직을 마치는 순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물일곱 젊은이가 공직에 들어 한길을 가고 이제 그 길에서 내려오는 시간, 만 34년이 흘렀습니다. 80년대 후반, 그 세월에 매년 이삿짐을 싸고 셋방을 전전하던 일, 한창 아파트 분양바람이 불어 분양 신청을 하려고 하면 5년 무주택증명서를 떼어야 해서 이사했던 지역의 동사무소 다섯 군데와 등기소 두세 곳을 찾아 서류를 만들어서 스무 번 가까이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당첨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고시도 아니고…”라고 푸념도 참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분당 공무원아파트 24평짜리가 당첨돼 이사 가는 날, 큰아이는 초등학교를 세 번째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이사 그만 가면 안 돼? 친구들하고 사귀다 이사 가면 친구도 없어진단 말야,”

아이의 말에 가슴 한켠이 시큰했습니다.

“이젠, 안 그래도 돼. 우리 집이니까. 친구 몇 명도 같이 이사 들어가잖아.”

아이를 달랬습니다. 이후 새로 입주한 공무원단지에서 초중고를



다 나와 이젠 이곳이 고향이 되었다고 웃는 큰 녀석. 그래도 막내는 두 번째 전학으로 안정을 찾게 된 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집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내가 책임질 거라고 믿고, 그래도 승진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독한 마음을 먹고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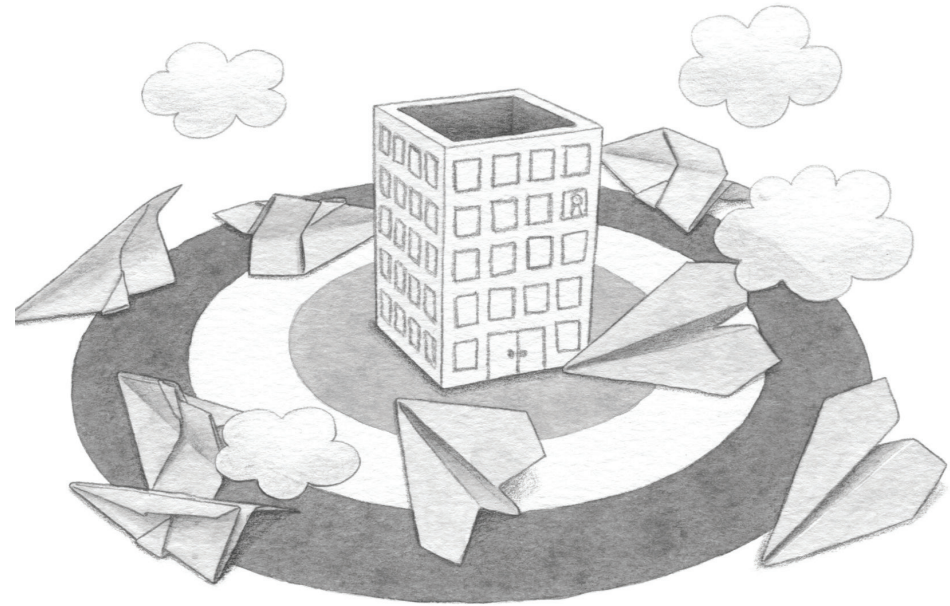
전했지만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직급 올라가면 또 위 직급이 있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 관서장 발령을 받고 지방으로 돌아 집 가까운 경기도 소도시에서 마지막 보직을 맡고 1년여를 근무하고 맞은 퇴임식입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미안함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도 각기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큰아이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고, 막내아들도 직장생활 잘한다고 직장 상사들에게 칭찬받고 있다하니 이만큼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마음의 다짐처럼 밝고 감사함으로 퇴임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언급한 한 구절에서는 잠시 숨을 멈췄을 뿐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퇴임식에서 가족을 언급한 말은 이랬습니다.

“매일 새벽별 보고 출근하며 밤늦게 들어오고, 24시간 긴장 속에서 생활하는 직장 분위기에 아내나 아이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자식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걸 보며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미안하고 또한 고마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과 가정을 잘 조화시키는 슬기로움을 발휘하여 저 같은 후회가 없길 바랍니다. 요즘 이런 남편은 당연 퇴출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내치지 않고 살아준 제 아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네요.”

이제, 퇴임식을 하고 관사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갑상선암 수술을 한 아내의 약을 챙기고, 아내와 둘째 녀석의 출근을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하면 커피 한잔 타고 여성시대를 켵니다. 따뜻한 사연, 아프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사연들에 눈시울을 적시는 ‘신참 주부’는 작은 녀석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아침 청소를 시작합니다.



**전** 올해 서른다섯 된,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서른다섯이면 한창 회사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만 있는 지 3개월 된 백수입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안되어 회사가 힘들어져 저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회사 재정이 힘들다보니 밀린 임금과 퇴직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취직이 되겠지 하며 크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생활에 불균형이 오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력서를 100군데 이상 넣었지만 면접 오라는 곳은 한두 군데였고 그마저도 수상한 다단계회사들이었습니다.

10년을 나름 컴퓨터 전문가로 열심히 살아온 저로서 참 암담했습니다. 경력직이라 신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착실하게 살아 왔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현

실에 놓인 제 삶의 무게는 무엇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7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한 제 아내는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를 하며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는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 들어오면 지칠 법도 한데 항상 웃으며 저에게 '괜찮아, 괜찮아...' 용기를 줍니다. 그런 아내가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미안해서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아들에게 못 물려준 거 같다고 자신들을 질책하며 잠을 못 이루십니다. 못한 저도 한때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해 내가 이런 거 같다고 한탄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제 자신



이 더 미워지더군요.

이번 명절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를 다독여 주시더군요. 전 3개월 동안 아내가 준 용돈을 조금씩 모아둔 돈을 가지고 와 편지와 함께 어머니 가방에 몰래 넣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방에서 계단 청소 반장 전화번호와 필요한 서류, 출근 날짜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칠십이 되시는 어머니께 용돈은 못 드릴망정 35살이나 된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태주려고 청소일을 하신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혼자 숨죽여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자식이란 존재가 그런가 봅니다. 왜 기쁠 땐 부모님 생각이 나질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부모님 생각이 나고 부모님 뜻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흔세 살이신 아버지와 예순여섯이신 어머니는 아침 6시 30분에 두 분이 함께 집에서 나가십니다. 그리고선 항상 두 분이서 아들 걱정을 하며 서로 격려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우리라도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되니까...”

손주 재롱 보며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 할 부모님들은 아직도 제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동안 관한 자존심에 힘든 일 하기 싫어 나에게 맞는 직장만 찾았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알아보고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겐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훌륭하신 부모님과 저밖에 모르는 제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으니까요.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좋은 옷 한 벌씩 헤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전통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름하여 고시원 원장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성격이 독특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생활태도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지요. 한 달에 23만 원을 받고, 먹여주고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우리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은 학생은 서너 명에 불과하고 알바 수준의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과 중국동포,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60개의 방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47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어쩌면 영원히 고시원에서 살아야 할 사람도 몇 명 있지요. 모두들 천 원의 가치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다보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갖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은 미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320호에 살던 분이 있는데, 가명으로 김순철로 하겠습니다. 그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월 80만 원 정도 벌어 생활을 했습니다. ‘몸이 재산’이라며 가끔 삼겹살을 끊어와 소주 한 잔씩 마시며 행복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입실료를 안 내더니 9월 입실료까지 46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특성상 체납액이 많아질 수록 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통상 두 달 밀리면 내보내야 합니다. 건물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저로서는 개인들의 딱한 사정을 일일이 봐 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순철 씨, 저도 영업인데 더 이상 봐 드리기가 힘듭니다. 닥새 여유 드릴 테니 방을 비워주세요”

“아이고 원장님. 제가 몸이 아파 일을 못해서 그러니 회복되는 대로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저는 갈 곳도 없는 사람이니 좀 봐주세요.”

다 죽어가는 억양이기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열린 방문 앞 복도에 주저앉은 그는 자꾸 머리가 바닥을 향하여 상체가 앞뒤로 계속 흔들리면서, 앉아 있을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총무를 통해 그가 좀 아프다고는 들었지만 저 정도면 입실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지더라도 한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총무 말에 의하면 한글도 모르고 연고자도 없다는데 말입니다.

그 우려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녁 무렵 화장실에 다녀오던 그는 벌목장 나무 넘어가듯 복도에서 ‘파당’ 하고 쓰러졌고 옆방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답니다. 총무가 119에 신고하여 인근 의료원으로 후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의료원 측에서는 ‘검사 결과 이상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였는데 간단한 검사만 해보고 그런 진단을 내려 입원 치료를 회피하다니 참다

운 의료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 내심 분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순철 씨는 다음날 아침 다시 돌아왔습니다. 난간을 붙들고 겨우 겨우 계단을 올라가던 그는 2층과 3층 중간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다가 갑자기 뒤로 ‘파당’ 하고 넘어갔습니다. 올라가는 뒷모습이 위태위태하여 눈을 떼지 않고 있던 총무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총무가 들쳐 업고 김순철 씨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제 119에 실려 보냈음에도 되돌아왔는데 또 실어 보내봤자 다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한참을 궁리하다가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생각해냈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실마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각 구청마다 노숙자보호센터가 있으니 그곳으로 전화해 보세요’ 하면서 광진구청 보호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구청 보호센터 실무자는 다시 ‘이런 경우는 서울역 노란컨테이너로 불리는 노숙자 총괄센터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노란컨테이너에서는 ‘내일 자원봉사하는 의사 분이 오시니까 한 시까지 모시고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시간 맞춰 김순철 씨를 택시에 태워 총무와 함께 서울역 노란컨테이너로 보냈습니다. 솔직히, 우리 고시원에서 사망사고라도 생기면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보호시설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김순철 씨는 노란컨테이너에서도 비몽사몽 흔들거리다가 두 번이나 혼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근무자가 바로 구급차를 불러 후송시켰고 총무는 그 후 경과를 못 보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노란컨테이너에 전화를 해보니



김순철 씨는 ‘급성결핵’이라는 병이었고 더 지체했을 경우 사망에 이르렀을 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 일단 김순철 씨 방을 정리해 집을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었습니다. 사실 보관할만한 값 있는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나아진 다 하더라도 46만 원이나 체납한 사람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을 것 같아서, 몇 달 후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 중에는 험하게 살아온 분들이 많기에, 김순철 씨의 경우 조금 특수하긴 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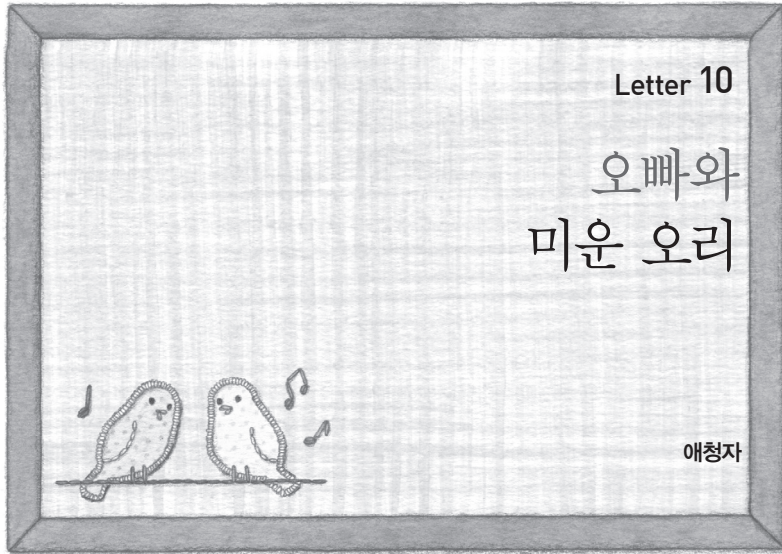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석 달 정도 지난 어제, 김순철 씨가 아주 건강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고시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후 서대문에 있는 천주교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옷과 신발도 구호단체에서 보내준 거라고 했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살도 많이 찌서 처음에는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포기해버린, 밀린 입실료 46만 원을 갚겠다며 우선 10만 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며 총무가 좋아하는 캔 콜라도 한 상자 들고 왔습니다.

김순철 씨는 수녀님의 알선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다음 달부터 월 47만 원씩 받을 것이고 지금은 보호시설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용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에서는 입소 3개월 후에는 나가야 하기에 다음 달에 우리 고시원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해졌으니 열심히 일해서 매달 입실료는 물론이고 밀린 입실료도 한 달에 10만 원씩 분할 납부할 게요”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조아리는데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 고시원에서 죽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더 컸었으니까요.

김순철 씨는 ‘빛은 갇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46만 원은 큰돈이기에 모른 척하고 다른 고시원으로 들어가도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비록 돈은 없어도 건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책임과 도리를 저버린 채 끝없는 욕심을 좇다 주변 사람들에 피해를 입히곤 하는 요즘 시대에 말입니다.



저에게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20대 중반,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는 3살 여자아이를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고아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 입양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면 네가 대학 보내고 시집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너의 인생보다 여동생한테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괜찮겠어?”

여자아이를 입양할지 안 할지 저의 선택을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으니, 엄마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는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종종 병원에 입원을 하다보니, 여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 하는 일도 저의 몫이 되었

지요.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셨는지 항상 여동생 걱정을 하였고, 살아생전에 늘 “내가 없더라도 동생 잘 돌봐야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어떤 것을 사더라도 항상 여동생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주지만,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열 번, 스무 번 생각해보고 고민 끝에 안 사거나 사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 물건을 살 때 구두쇠처럼 하는 이유는 돈을 아꼈다가 나중에 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동생이 태블릿 PC가 있으면 인터넷 강의를 듣기 편하다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기에 여동생을 놀래주려고 제 용돈을 따로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시겠지만, 내가 먹고사는 건 아까워하면서 자식을 위해 사주는 것은 아끼지 않으시듯, 저도 내가 먹고사는 데 있어서는 엄청 잔돌이지만, 여동생이 필요한 거,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해주게 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여동생이 “오빠! 담배 끊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끊어?” 하면서 속상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바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또, 여동생이 제가 하는 캐릭터를 그리는 일을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 준 덕분에 제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된 캐릭터 요정들이 생겼고 저의 캐릭터로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 ‘캐릭터 전시회’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어느덧 여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요즘 부쩍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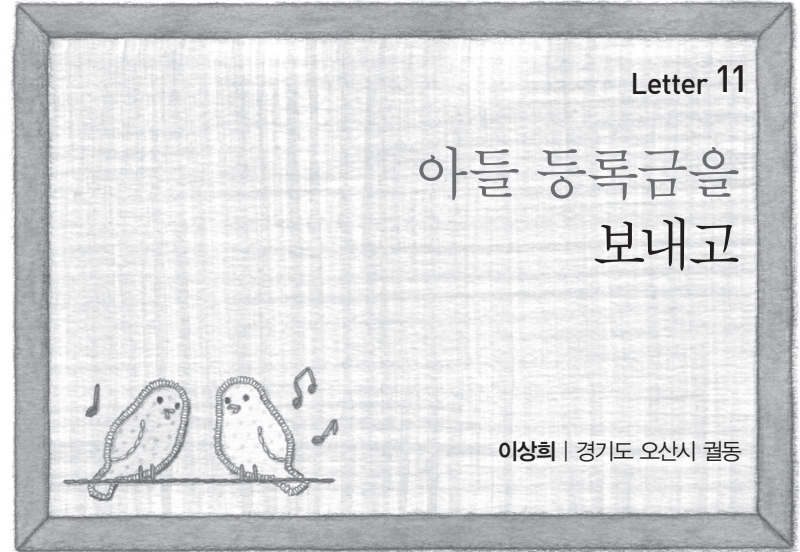
도 어머니를 닮아 가는지 심장이 약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계단 2,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저도 모르게 기절하구요. 아직 여동생을 챙겨주고 보살펴야 되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매일 매일 쉬는 날 없이 공원에 가서 꾸준히 걷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꿈, 자기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예뻐요. 그런 여동생이 이루고 싶은 꿈, 가고 싶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요. 못 가게 되면 많이 슬퍼할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적금도 들고 있습니다. 올해 약간 오른 월급도 모두 적금에 넣고 있습니다.

동생이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고, 어머니의 빈자리가 컸을 텐데 힘든 시기에 방황하지 않고, 잘 커가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 지금은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것도 정말 고맙습니다. 가끔 여동생이 나쁜 길로 안 빠졌으면 하는 마음에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걸로 티격태격 다투기는 하지만, 여동생을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시간이 흘러, 여동생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 하늘로 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엄마랑 약속한 여동생 잘 챙겨주고 잘 돌봐주기로 한 거, 잘 지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끝으로 두 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동생이 크면 입양한 걸 이야기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친구들에게 가끔 제 고민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이게 여동생을 위해 올바른 건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큰애가 들어갈 학교에 등록금을 냈습니다. 전문대 보내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이나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큰애는 아주 험난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던 아이는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긋나기 시작했지요. 학원을 빼먹는 것은 다반사였고 수업 시간엔 엎어져서 잠자기, 선생님이 혼내면 아무 말 없이 나가기, 담배 피우기, 주먹질 하고 다니기까지... 학교에서 부르기엔 달렸더니 아이들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빵셔틀'의 중간책이라는 겁니다. 역장이 무너지더군요. 그 후로 학교에 불려가는 날이 많아졌고 아이의 일탈행동은 저를 기함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불만이 뭐냐고 물었더니 불만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공부는 하기 싫고 놀러 다니고만 싶다는 겁니다. 외고로 보내나 특목고로 보내나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던 녀석인데 아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달래도 보고 혼을 내보기도 하고 용돈을 끊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사정하여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아이가 방황하는 동안 저는 부모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뭔지, 인간의 심리가 무엇인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였다는 게 또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내 입맛에 맞게 하려고 사랑을 쥐어줬고, 아이의 인생을 위한다면서 제가 바라는 목표를 들이밀었던군요. 남의 눈치를 보고 남한테 으스스대고 싶어서 아이한테 공부를 닦달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이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더러 '엄마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똑똑히 기억해둬'라며 창문을 열고 아이에게 겁을 줬던 그때,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나는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면서 아이한테는 성인군자 같은 언행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날을 울며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을 추스르면서 제 마음 안에 남겨 놓은 생각 하나는 '아이의 인생을 살게 해주자'였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지금 그 기틀을 어떻게 마련해주면 좋을지,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또 했습니다. 제 욕심이 고개를 쳐들면 어금니를 깨물면서 잡념을 털어냈지요. 그렇게 찾은 것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목표를 만드는데 조연자가 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각을 들어야겠더군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말투부터 바꿨지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갔어?”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학교에 안 가면 엄마는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 어떻게 하지?”라고요. 석 달 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제게 말을 하더군요. 예전처럼 짜증 섞인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다가가니 더디지만 가까워지더군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아이가 심각하게 말을 걸더군요. “엄마, 나는 수업이 재미가 없어. 중학교 내내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한다고 재미가 있겠냐고.” 예전 같으면 ‘공부를 재미로 하나?’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한 마음을 감추고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난 1학기 때 결석이랑 지각이 너무 많아서 생활기록부도 엉망이야. 이대로 3년을 보낸다고 해도 대학 갈 자신도 없고, 더구나 3년을 이렇게 보낼 자신이 없어. 자퇴를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처음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이 허공에 뜬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고 했더니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겠단 싶어서 함께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봤죠. 다행히 다른 소질은 없는데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퇴를 하고나서 저는 아이를 미국 외삼촌댁으로 여행 삼아 보냈습니다. 비행기 값만 쥐어서 혼자 찾아가라고 시켰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조여든답니다. 국제미아가 될까봐 엄청 초조했거든요. 다행히 라스베이거스까지 잘 찾아갔더라고요. 미국에서 돌아온 아이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민 가서 고생한 얘기를 듣고 미국의 대도시를 여행하면서 나태한 자신을 봤다고 하더군요. 마냥 어린애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생각이 여물어 있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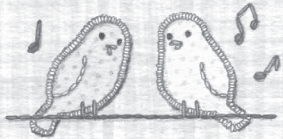
미국에서 돌아온 아이는 검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억척스럽게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겐 무엇보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이번에 전문대 관광영어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병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군대는 언제쯤 갈 건지, 진로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짜놓고 있더군요.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저는 큰애를 통해 알았습니다.

기특했습니다. 제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기다려준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아이의 행복을 기준 삼아서 다가가다 보면 아이도 마음을 열 거라는 위로가 단지 헛되지만은 않은 거였습니다.

이제는 큰애와 어울리던 친구들도 제 갈 길을 찾은 듯합니다. 어떤 아이는 일터로 나가고 어떤 아이는 기술을 배우고 또 어떤 아이는 진학을 했더군요. 호되게 앓은 사춘기가 그 아이들에게겐 살아가는데 채찍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 큰애가 읊조리는 말이랍니다. 오늘 학교에 등록금을 보내고 나서 애들 몰래 울었습니다. 잘 커 주는 애들이 고마워서 베갯잇이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 Letter 12

우리 부부가  
사는 법

윤종석 |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로

**환** 갑을 맞은 아내의 별호는 ‘암순이다. 20여 년간 3번의 암 투병을 한 씩씩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몇 년 전에 또 갑상샘 한쪽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목에는 그 수술 흔적이 희미하게 남았다. 우리는 그 수술 흔적을 ‘신이 걸어준 목걸이’라고 말한다. 이젠 더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다.

아내가 치료받던 시기에는 후유증이 심했다. 안면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아내는 침샘이 많이 파괴되어 지금까지도 물 없이는 밥을 넘기지 못한다. 알약이라도 먹으려면 넘겼다가 도로 뱉어내는 마술사 같은 여자가 되었다. 어떨 땐 약이 목에 걸리고 밥을 먹다가도 사레가 들린다. 숨이 넘어갈 듯한 긴박한 순간을 자주 겪는다. 그런 모습을 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다.

무엇보다 아내는 치료 후유증으로 추위를 많이 탄다.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질색한다. 추운 날엔 집에서조차 옷을 몇 겹을 껴 입고 “아이고 추워”를 입에 달고 산다. 그래도 보일러를 켜다가 금방 꺼버린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돈 돌아가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다. 손바닥만 한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몇 해 겨울을 보냈다. 남자 냄새가 난다고 투정을 하면서도 내 체온에 의지하며 잠을 청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풍족하지 못한 살림을 꾸려온 가장으로서 자신을 자책하기 일쑤다.

몇 해 전부터 아내는 돌침대 얘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돌침대 하나 삽시다. 참 뜨끈뜨끈하고 좋을 텐데.”

“돌침대? 그거 사느니 보일러 틀고 살아! 당신 침대 좋아하지 않아.”

젊을 때 침대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는 사용하던 침대를 두 번 없애버린 적이 있다. 그때 아내의 과감한 행동이 생각나서 볼멘소리를 하고 말았다. 그래도 아내는 돌침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어느 날 돌침대 판매장에 같이 가자고 했다. 이 기회까지 놓치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아 따라 나섰다.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그중 적당한 가격의 첫눈에 드는 침대가 있었다. 적지 않은 가격이었는데 아내는 선뜻 계산하였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요식업소의 카운터 알바를 나간다. 손님 눈치 보가며 제때 밥도 못 먹고 번 그 돈을 쓴 것이다. 침대를 들여놓은 날 밤 뜨끈뜨끈한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쓸데없는 아집을 피웠던지 아내에게 더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곤히 잠든 아내에게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

아내는 뜻밖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걱정거리는 내년부터 수혜자가 되는 국민연금과 얼마 후 다가오는 조부모님 제사 준비였다.

아내는 수년 전 퇴직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받았다. 반환금을 다시 입금하면 연금 수혜자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조부모 기일엔 카운터 일을 절대 빠질 수 없는 상황이 겹쳐버렸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얼마 후 내 돈을 보태어 아내의 국민연금 반환금을 다시 냈다. 당연한 일인데도 아내는 고마운 눈빛이 역력했다. 제사 준비도 걱정은 안 되었다. 어릴 적에 혼자 바쁘게 일하시던 어머니를 도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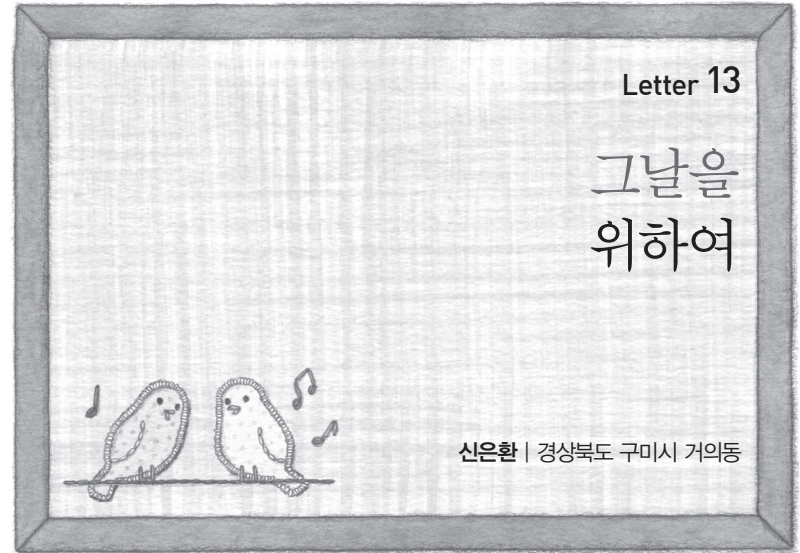
제삿날, 아내가 출근한 후 나는 올망졸망 싸놓은 제수용품 봉지를 헤쳐가며 제사 준비를 했다. 생선을 찌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깨끗이 씻어 놓으니 제법 그럴 듯하게 보였다. 저녁에 밥과 국까지 정성스럽게 끓이고 병풍을 펴고 지방을 쓰고 제사상을 차려 놓았다. 어느 때보다 잘 차려진 제사상으로 보였다. 향을 켜고 술을 올리며 절을 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차려놓은 것은 별로 없는데 잘 드시던 것 차려 놓았으니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 무고하게 돌봐주세요!”

갑자기 콧등이 시큰해졌다. 수년간 아픈 아내와 몇 년 전 아팠던 작은딸과 거동조차 불편해진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밖에서 아내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났다.

“어머! 상도 예쁘게 차려놨네. 정말 잘 차렸네. 수고했어요.”

어디다 자랑하려는 건지 사진을 찍고 수선을 피우던 아내는 술을 따라 올렸다. 우리는 조부모님의 희미한 추억을 떠올리며 평소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을 기원하며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마도 나이 들어가는 우리 부부의 건강과 객지 생활하는 두 딸의 안녕을 빌었을 것이다. 촛불이 하염없이 촛농을 흘리고 있을 때까지 우리 부부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요** 즘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취업은 했어? 그 좋은 학교 나와서 뭐하고 있는 거야?”

“4년 동안 들어간 등록금이 아깝다. 아까워!”

올해 나이 31세. 누구든 알만한 명문대를 졸업했으니 모두들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 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곧, 제가 취업의 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1번의 실패, 그리고 2번의 실패, 계속 거듭되는 실패와 함께 수십 개의 이력서를 적고 또 적어도 저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탈락의 쓰디쓴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더욱더 좋은 능력과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공부하며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쌓아봤지만 결과는 아직 3년째 취업준비생. 그야말로 아



무것도 가진 게 없는 백수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도 잡고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정도 꾸려나가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요즘은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스스로가 꼴도 보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걱정이 되는 건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엄마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는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시장에 나가서 생선 장사를 하며 꼬깃꼬깃 모은 돈으로 저를 키우고 대학교 뒷바라지까지 모두 해주셨습니다.

제가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남들보다 먼저 직장 생활 시작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먼저 성공하면 되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넉넉지 못한 형편에 제대로 해준 거 하나도 없지만 네가 하고 싶은 공부는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하며 제 등을 떠미시던 엄마. 지금까지도 제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엄마에게 너무도 죄송한 마음에, 저는 요즘 차마 고개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학에 진학하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성공해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그러도 다짐을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도무지 저를 도와주지 않네요.

‘은환이 엄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해서 얼마나 좋아? 부럽다. 부러워!’라는 말을 들려 드리지는 못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 저렇게 몇 년째 놀고 앉아 있는데... 은환이 엄마 헛고생 했네! 그 등록금 아까워서 어쩐데?’라는 말을 듣게 해드리고 있으니 어찌 이보다 더한 불효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제 속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은환아, 이 참에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 보는 게 어때?”

“자격증?”

“그래, 요즘은 뭐든 자격증 시대야. 인증을 받아야 한다니까. 네가 성적도 좋고 다 좋은데,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그걸 취득할 시간이나 있었냐? 아르바이트에 수업에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취득해 보란 거지. 6개월에서 1년이면 2개 정도는 거뜰하단니까!”

“그래?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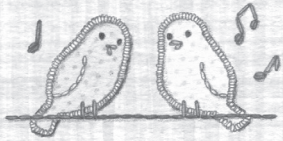
“요즘은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동영상 강의도 있고. 나도 도와줄게.”

친구의 솔직한 제안이 조금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모두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모 아니면 도, 밀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전부터 저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가진 것 없는 백수지만 지쳐 쓰러지지 않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저희 엄마처럼, 저도 사랑하는 엄마와 제 인생을 위해 한 번 더 열심히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제가 기필코 잘해 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Letter 14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김진화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감로

97년에 신랑을 처음 봤습니다. 서글서글하고 항상 주변인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마음 씀씀이가 조금씩 제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많이 다쳐 중환자실에서 삶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그럴 때 이 사람을 제가 잡았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신랑을 저라도 잡고 있어야 할 거 같아서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간단히 짐 챙겨서 들어 왔습니다. 장애가 있고, 직장도 없고, 몸엔 보조기를 차고, 보조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 사람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세상에 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밝게 다시 세상에 나갈 때, 그 순간에 제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서 현관에서 '오늘 빨리 들어와' 하며 배웅하고 싶었고,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울함 때문인지 책임감 때문인지 신랑은 거의 말없이 하루를 보냈



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었는데 같이 살면서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싸우기라도 하면 몇 주는 입을 닫아 버립니다.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야야, 저거 버리려고, 니 편하게 살아라. 저거 인간 안 된다" 제 마음 다칠까봐 남편을 더 야단치셨습니다.

아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무지 애를 썼습니다. 제가 워낙 몸이 약해서 유명한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 먹고, 병원에서 호르몬 주사도 맞아가며 몸을 불렀습니다. 온갖 약과 호르몬제로 애쓰고 있는데, 집에서 한약 냄새라도 나면 신랑은 피시방에서 밤을 새우고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날 무렵 아이를 가졌고, 태아 보험을 들기 위해 신랑이 그제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큰아이 돌잔치를 하고 했는데, 신혼여행 때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3일을 우는 아이 달려며 울산에서 정동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량은 다시 멋지게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새벽 5시 전에 출발하여 부산과 울산을 매일 다녔습니다. 불평도 없고 짜증도 없이 다녔지만 워낙 위험한 공사장 일이라서 일 년에 한 번씩은 다치고 입원을 한 거 같습니다. 결혼 9년쯤 때까지 8번의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갈비뼈가 2개 부러졌을 땐, 장기 출장 간다고 저에게 거짓말하고 보름 입원하고서 멀쩡히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포항에서 일하다 팔이 세 동강 났는데, 병원에서 응급치지만 받고서 울산까지 자기가 운전을 해서 제 가게로 와서는 “저기 마누라, 내가 지금 보호자가 좀 필요하다” 이리기에 집에 가서 지난번 퇴원할 때 써서 온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9년 차에 신량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에 하루 세 번 면회가 가능한데 신량은 그 세 번 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 여보. 어떻게 왔어? 반가워. 애들은?”

중환자실 보호자실에서 한 달을 지냈는데 신량은 항상 같은 인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내일은 다들 가야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5살, 7살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겨두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신량은 기억이라는 걸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싫다고 했지만 전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 왔어요. 아이들 볼 땐 휠체어에서 담담히 있더니만 아이들 보내고 평평 우는 신량을 보며 제가 한마디 했죠.

“여보, 넘사시럽게 와 우나? 이게 끝이 아니다 아이가? 내 한번도 안 울었다는 거 알제? 내 함 울어보까? 여보, 포기 안할 거면 울지 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나하나 같이 해보자.”

그 다음 날부터 신량은 지하 2층에서 7층까지 계단을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손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원래 장애가 있는 몸에 찾아온 뇌졸중이란 병은 너무 가혹하게 신량을 괴롭혔습니다.

38살 밖에 안 된 신량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다음해 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며 지내다가도 비가 내리는 날은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신량을 보며 마음 깊숙한데서 겁이 얼마나 났는지 모른답니다.

봄꽃이 필 때 신량은 자기가 운전을 해서 당당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짜자자잔...” 하면서 한 팔이 아닌 두 팔로 안아 목마를 태웠답니다.

지금 우리는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회사는 걸어서 10분 거리. 신량은 요즘 집 회사, 집 회사입니다. 뺏속까지 경상도 남자이던 신량이 칼 퇴근하면서 옥상 빨랫줄을 훑어보고, 세탁기를 들여다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을 매일합니다. 제가 하면 색깔이 변한다고 자기가 생미역을 사다가 데쳐서 소쿠리에 가지런히 널어 말리기도 하고, 부부는 대화가 많아야 한다고 졸린 날 앓혀 놓고 차를 마시고, 정말 좋아하는 야구를 보다가도 드라마 시간이 되면 슬며시 졸리는 듯 방으로 들어가 줍니다.

부부 사이 뭐 별거 있겠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이제 얼마 후면 신량의 생일입니다. 자기에게 멋진 생일 선물을 줘야 한다고 해서 뭘 바라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뜯들이다가 이러더군요. “여보, 다음 생에 다시 나 만나줘. 꼭...” 에이, 이걸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바보 같은 저는 현금이 안 드니까 그냥 그러마 해 버렸습니다. 신량, 마흔한 살 생일 축하해요!





# 응직한 큰딸의 편지

이 글은 부산 해운대 양운리

안녕하세요 최은민님. 삼수오라버니!  
 저는 라디오를 벗삼아 아침부터 낮에는  
 형영 활동하면서 차 안에서 자동으로 거고 다녀요.  
 큰딸이 응직하리 취직하기 데리 부듯한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춘해대학교 4년제  
<sup>간호학과를</sup> 다니고 부산진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취직.  
 그와 한달간 실습하면서 엄마에게 2번  
 편지가 오는 도착했네요. 함께 동봉합니다.  
 응직하리 큰딸은 큰딸인가봐요.  
 어렸적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어렵게 생애했지만 건강하리 짝  
 자라준 두 딸이 항상 건강하리 사랑스러웠거든요.

근데도 때때 학원 다니기 많고 수업과  
 야간 자습학습만 말고 간혹 학과에 붙고  
 엄마 생각한다면 두시간가는 편지기를  
 통학하며 (1년째 원룸생활함) 근영스런  
 보듬은 몸뚱이 짝 커튼은 큰딸  
 잠밖 데전스럼요. 3년째에서 후배부터  
 4년제로 바뀌면서 1년 러다녀 조성을 하게  
 되었네요. 언제나 변함없이 엄마를 챙겨주는  
 딸아이가 족여라도 아음은 다치지 않음까  
 항상 엄마는 너를 믿고 믿으니 하고 싶은거  
 있으면 의논하라고 한것이 거짓이 없고  
 무슨일이든 친구처럼 의논해오  
 잘 자라준 우리 딸 사랑해  
 감사합니다. 두분 건강하리 같이 건강하세요

2015. 3. 10 부산에서 이 글은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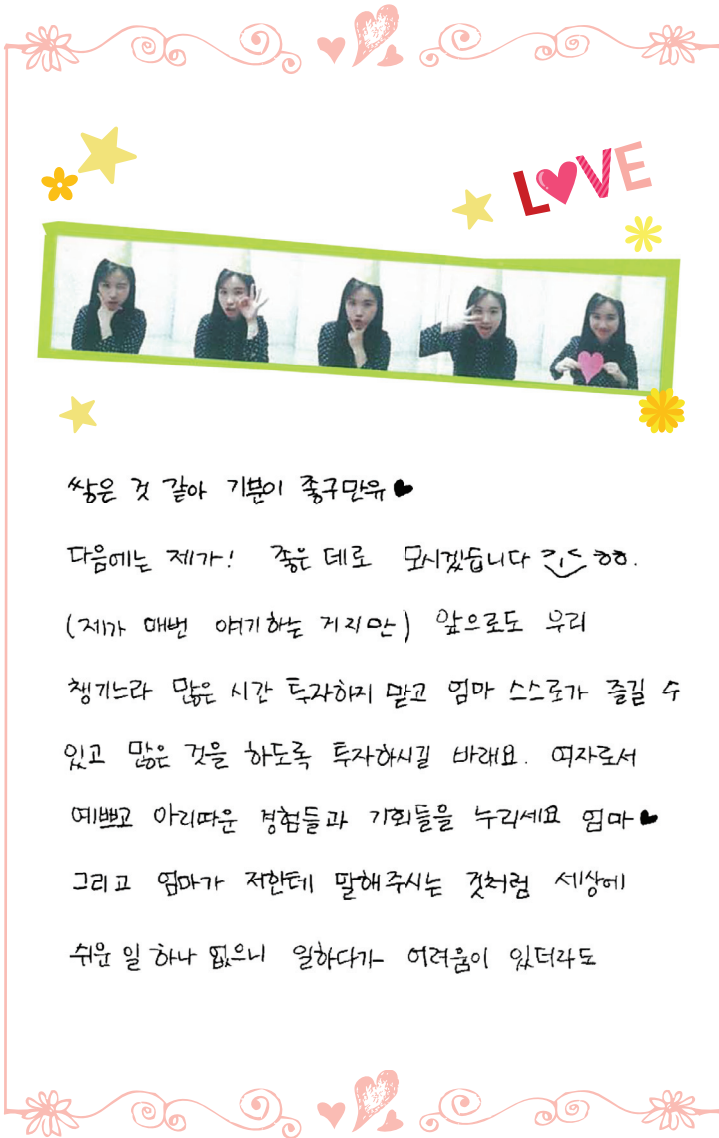
## \* 존경하는 우리 오마니께

엄마! 저 큰딸 은아예요 😊 이 편지 받으시고선  
 '웬 편지고?' 하시겠지만 고신 대학교 북음병원으로 부터  
 왔다는 것과 신규간호사들과 선생님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시면 광대승천하실 모습이 보입니당! ㅎㅎ  
 이제 더 듬직한 큰딸이 될 수 있어 제 기쁨 또한 커요-.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저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점이라 생각해요♥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 간호사로서도 엄마한테 믿음 줄 수 있는 큰딸이고 싶고,  
 기댈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도록 할게요! 이미 절반은  
 넘어온 것 같지만요 ㅋㅋ 이겼을 때부터 늘 써왔던 편지  
 내용 중에 '제가 커서 효도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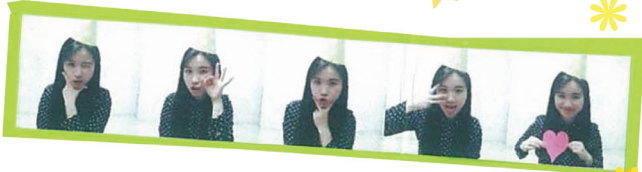
라고 했던 것.. 이제 정말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았다기 보단 이전 정말 이룰 수 있게 됐어요 ♥♥

3년제가 아닌 4년제로 학업을 마치고 싶다고 했을 때  
 빨리 가족에게 보탬이 되길 원하셨지만 제가 그때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믿어달라고 했을 때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엄마가 저한테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그리고 큰 사랑이 느껴지네요.  
 엄마 고마워용 ♥♥ 최근 엄마. 나. 은영이 여자 셋이서  
 거제도도 떠났던 여행에서도 하나라도 좋은 거 더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기 위해 아낌없이 주는 것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진짜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 추억 하나 또



★ LOVE



사랑은 것 같아 기분이 좋구만유 ♡

다음에는 제가!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ㄹㅇ ㅎㅎ.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앞으로도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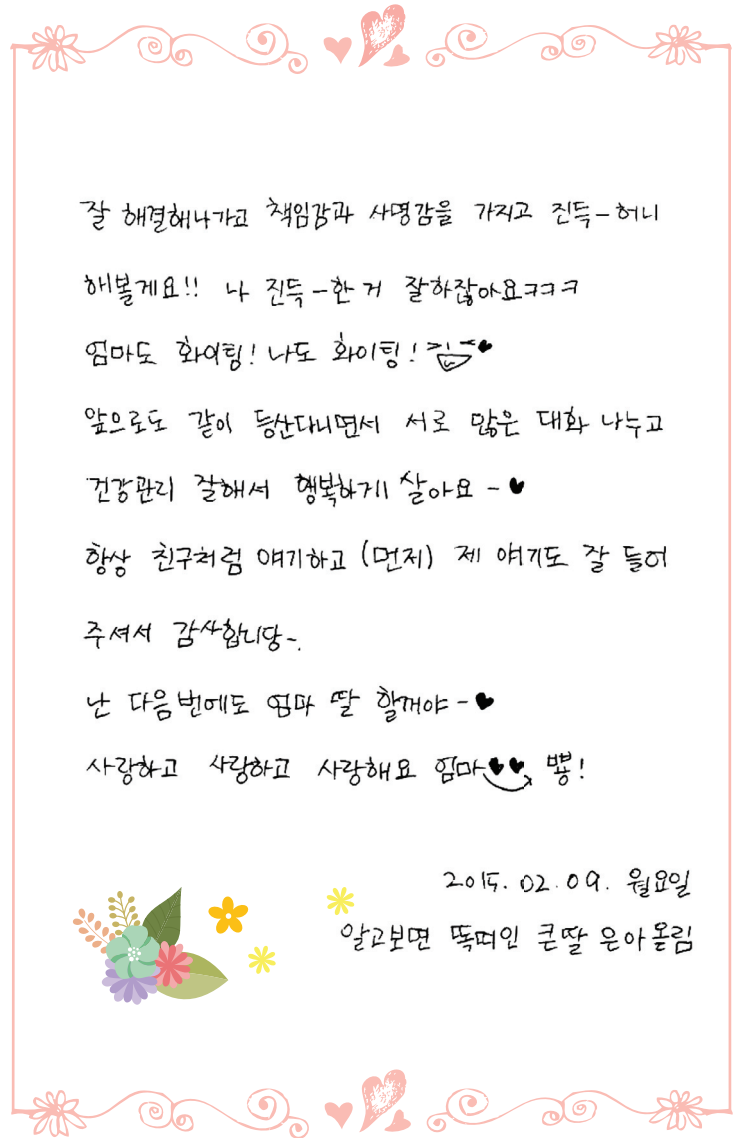
챙기느라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고 엄마 스스로가 즐길 수

있고 많은 것을 하도록 투자하시길 바래요. 여자로서

메이크업 아리따운 경험들과 기회들을 누리세요 엄마 ♡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으니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해결해나가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득-허니

해볼게요!! 나 진득-한 거 잘하잖아요ㅋㅋ

엄마도 화이팅! 나도 화이팅! ㄹㅇ ♡

앞으로도 같이 등산다니면서 서로 많은 대화 나누고

건강관리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 ♡

항상 친구처럼 얘기하고 (먼제) 제 얘기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당-

난 다음 번에도 엄마 딸 할거야 - ♡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요 엄마 ㄹㅇ ㅎㅎ ㄹㅇ!



2014. 02. 09. 월요일  
알고보면 똑똑인 큰딸 은아 올림



#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IBK기업은행 호계동기업금융지점 거래고객

**(주)힘펠 김정환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 환기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실내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으면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다중 시설 내 이산화탄소 수치를 1,00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5년 전부터는 신축 아파트에도 환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시점에서 국내 최고의 환기시스템 제조업체 (주)힘펠의 김정환 대표를 만났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에는  
각 방마다 환풍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소음 때문에 등의 이유로  
환풍기를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의 소비전력은 30W  
내외. 한 달 내내 가동했을 때 나  
오는 전기요금도 1,000원이 채 안  
된다. 헤어드라이기의 소비전력이

1,200~2,000W인 것과 비교해 보면  
환풍기를 사용하는데 드는 전력량이  
얼마나 적은 지 실감할 수 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의 중요  
성을 알고 있지만,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공기 상태가 얼마나 나쁜 지 눈  
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졸음이  
밀려오거나 두통이 생기는 등 신체  
적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상태를 인





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환풍기가 설치돼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많은 이유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김 대표는 직원들과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먼저, 몇몇 직원 집을 방문해 빈 방에서 이산화탄소 수치를 잰다. 380~450ppm 정도로 쾌적하게 나타났다. 그 방에 부부가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난 후, 이산화탄소 수치를 잰더니 2,000~2,500ppm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준의 2배가 훌쩍 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환풍기를 켜놓고 자면, 600~700ppm 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환풍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환풍기를 틀고 자면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집에서 살거나 새

가구를 들인 경우에는 환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 환풍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김 대표가 열변을 토하고 있을 무렵,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이가 있었다. 바로 IBK기업은행 호계동 기업금융지점 임형수 지점장이다. 그는 “건강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주)힘펠이 하고 있는 일은 시대의 흐름에 꼭 맞는 사업이지요.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환기시스템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 지점장이 이처럼 기대를 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힘펠은 ‘환기’라는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제품으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에 멈추지 않고, 다기능 환풍기 ‘휴젠뜨’를 출시해 개인 소비자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욕실이 추워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어르신이 계신 집에서는 추운 데서 샤워

하다가 행여 감기가 걸릴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젠뜨’를 사용하면 욕실 내 온도를 금방 높일 수 있어 체온을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욕실 건조 기능과 습기 제거 기능도 있어 곰팡이, 세균 등을 제거할 수 있고, 헤어드라이 기능이 탑재돼 있어 바쁜 아침 시간에 머리를 말리며 다른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힘펠 제품이 지닌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디자인이다. (주)힘펠은 해외 전시회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데, 얼마 전 참여한 독일 전시회에서도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직원 개개인이 자기 계발을 통해 자신이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직원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부 교육 훈련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두세 명씩 돌아가면서 이달에 읽은 책의 독후감을 발표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만족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실을 다지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주)힘펠은 국내 환풍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힘펠의 2014년 연매출액은 290억 원. 2015년에는 연매출





3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1위 기업이지만 김 대표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세계 제일의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매출의 80%가 B2B(기업 간 거래)입니다. B2B 시장의 매출을 그대로 가져가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비중과 해외 수출 비중을 높여, B2B, B2C, 수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4:3:3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욱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해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겠다 말하는 김정환 대표. (주)힘펠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IBK기업은행 호계동기업금융지점 임형수 지점장(왼쪽)과 (주)힘펠 김정환 대표(오른쪽)

### TIP 김정환 대표의 성공 노하우

1. 도전 : 끊임없이 도전해야 발전할 수 있다
2. 몰입 : 한눈팔지 않고 한 분야에 몰두해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3. 정도 : 정확하게 바른 길을 걸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 (주)힘펠

대표 김정환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성남로8번길 4 (031-226-3355)  
홈페이지 <http://www.himpel.co.kr>

기간 표 2015. 4. 1(수)~ 5. 31(일)  
2015. 6. 12(금),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게시

**Event 1** IBK ONE뱅킹 최초 이용하시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가세요!

응모방법 ONE뱅킹(개인) 앱 내 전체메뉴 → 이벤트 → 이벤트 소식 → '꽃보다 IBK ONE! 가족사랑 이벤트' 선택 → '응모하기' 선택 → 성명, 핸드폰번호 입력

<p>1등</p> <p>국민관광상품권(100만원 상당) &lt;1명&gt;</p>	<p>백스킨라빈스싱글링 아이스크림 &lt;1,200명&gt;</p>
---	---------------------------------------

\* 국민관광상품권은 차액(국민 22%, 고액 본인책임)

• IBK ONE뱅킹 최초 이용이랑?  
이벤트 기간 내 IBK ONE뱅킹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최초로 서비스 이용 (계좌조회 등)

**Event 2** ONE뱅킹에서 상품 가입하시고 치즈케익 드세요!

응모방법 파리바게토 치즈가 부드러운 시간 <50명>

\*ONE뱅킹에서 상품 가입하는 방법안내  
ONE뱅킹(개인) 앱 내 전체메뉴 → ONE금융센터 바로가기

\* 이벤트 기간 내 상품 가입하신 고객 대상 전산후행처리

**Event 3** 틀린 그림 찾아서 정답 맞추고 커피 마세요!

응모방법 ONE뱅킹(개인) 앱 내 전체메뉴 → 이벤트 → 이벤트 소식 → '꽃보다 IBK ONE! 가족사랑 이벤트' 선택 → '응모하기' 선택 → 성명, 핸드폰번호 입력 및 정답 선택

Q. 두 그림 중 틀린곳은 몇개일까요?보기 중 정답을 골라주세요.

A. 05개	24개	33개	42개	51개

카페바네 아메리카노 <50명>

NOTICE!  
본 이벤트 기간 내용 및 경품은 사전 고지 없이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지 될 수 있습니다. 교환일이 지난 기프티콘에 대해서는 재발송되지 않으며, 당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IBK ONE 서비스 및 금융상품 거래시 가입하신 요구제에 따라 통화비가 과금 될 수 있습니다. 50원 초과 경품의 경우 제세공과금(22%)은 본인 부담이며, 30일 이내 미수령 또는 잘못된 회원정보(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주소등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행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중복 당첨시 최상위 경품으로 1회 지급합니다. 기존 IBK ONE 서비스 및 금융상품등의 탈퇴 후 재가입, 어플리케이션 삭제 후 재설치는 참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내에 상품 가입하여 이벤트 종료기간까지 유지한 고객에 한합니다. 이벤트 경품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상품 실물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이벤트 상세내용 및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66-2566/1568-256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 2015-564호 (2015.03.11) 게시기간 : 2015.06.30

\*기타 이벤트 및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IBK 기업은행의 분쟁해결기구에 제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와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민이 1533-8877, 기업은행 : 0303-300-0787(기업은행의 금융) 항목을 받지 않습니다. : 유희경영 컨설팅사(주) 개인사업자 문의선 02-729-7420, e-mail : bhe@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명품전  
IBK기업은행 신춘차점 거래고객



맥널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두커피  
브랜드입니다.

**McNulty**  
coffee

[www.mcnulty.co.kr](http://www.mcnulty.co.kr)

IBK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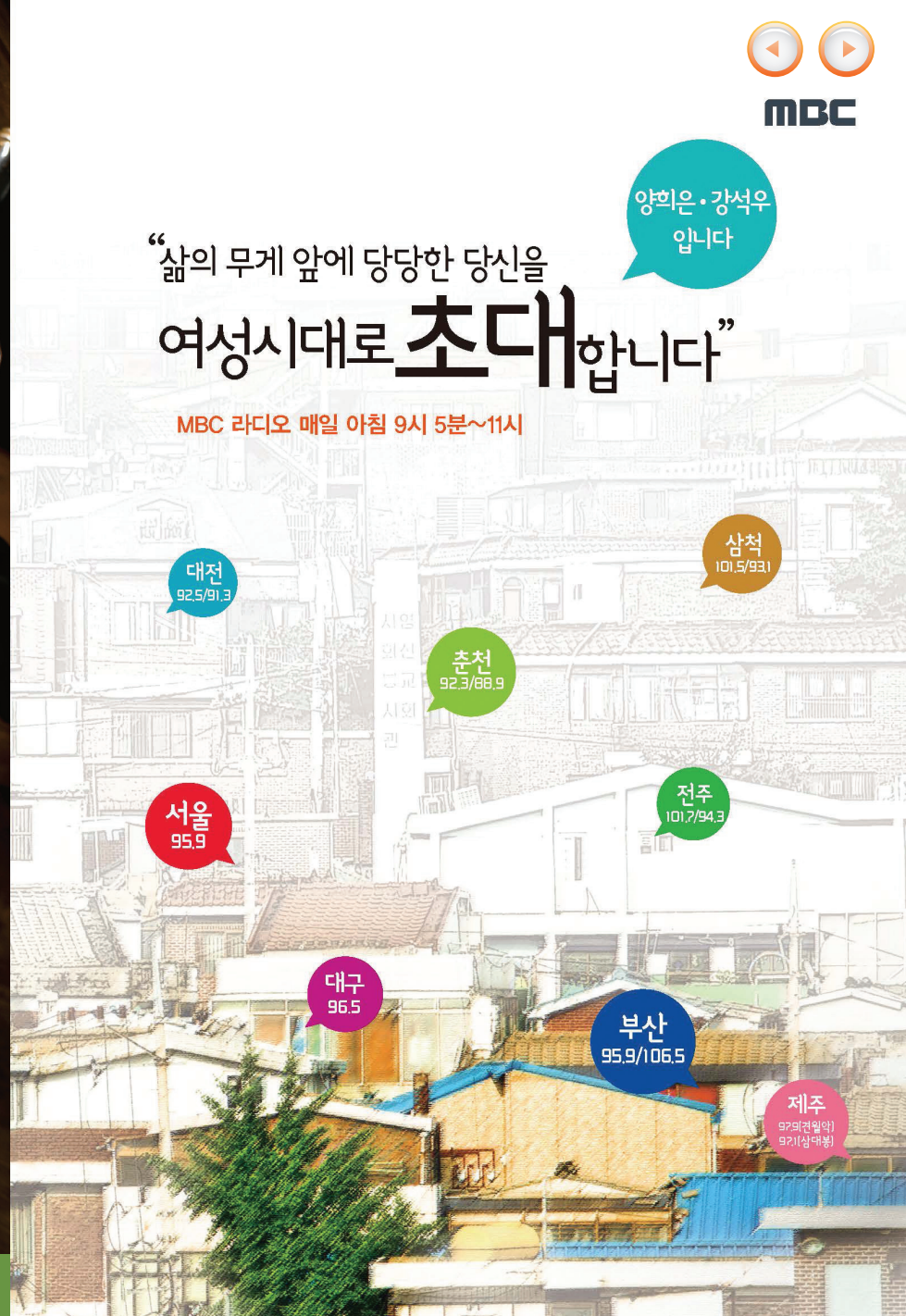


MBC

양희은·강석우  
입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대전  
92.5/91.3

삼척  
101.5/93.1

춘천  
92.3/88.9

서울  
95.9

전주  
101.7/94.3

대구  
96.5

부산  
95.9/106.5

제주  
97.0(전월역)  
97.0(심야역)



## 화려한 인생 2막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배내희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근 몇 달 동안 ‘헤에에엠’을 입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웃는 얼굴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마법의 주문을 알려준 이는 옆 가게 사진관 사장님이었다. ‘헤에에엠’에 리듬을 넣어 매일 아침 세수할 때 5분만 하면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만들어질 거라 장담을 했다. 시도 때도 없이 염소 울음 같은 소리를 내고 매일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어댔다. 굳어 있던 얼굴이 조금씩 펴지는 듯했고, 입가의 미소도 미스코리아 뺨을 칠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워졌다.

육십 줄을 넘긴 여성시대 가족 배내희 씨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된 건 ‘시니어 모델’이 되기 위해서였다. 평소 스타일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지라 모델 도전이 꿈이었는데 마침 시니어 모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날부터 모델 연습에 돌입했다. 패션잡지에 나온 모델들의 포즈를 따라하고 굵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걸음걸이 연습도 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올 3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니어 모델에 당당히 발탁됐다. 앞으로 패션쇼, 텔레비전 광고, 신문 광고, 잡지 화보 등에서 여성시대 가족 배내희 씨를 자주 볼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배내희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28년을 살았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지라 배내희 씨가 맡은 반은 환경미화 1등반으로 뽑히곤 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속에 파묻혀 늘 즐겁게 생활하려 애썼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공부도 즐겁게 가르치다보니 아이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학예회 때는 배 선생님의 진가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랐다. 연극이나 합창을 해야 하는 경우, 반 아이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양을 내주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음악을 알려주기 위해 저녁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오카리나, 드럼, 기타, 하모니카, 트럼펫을 배웠다.

날마다,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였지만 신 살이 넘어가며 조금씩 한계가 느껴졌다. 선생님보다 컴퓨터를 더 잘하고, 영어 발음도 더 좋은 아이들을 보며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 둘 것을 마음먹었다.

그렇게 신다섯 살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남들은 '쉬엄쉬엄 놀면서 몇 년 더 채우면 퇴직인데 뭐 그리 유난을 떠느냐?'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멋진 선생님이 될 수 없는 데, 자리만 보존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퇴직을 하고 바로 옷가게를 열었다. 동대문 밤 시장에서 옷과 구두를 사가지고 와서 팔았다. 몸은 바빴지만 그 바쁨이 활기를 가져다주었다.

배내희 씨가 옷가게만을 한 건 아니다. 매주 수요일 구민회관에서 판소리를 배우고, 매주 월요일은 송파시니어극단에서 연극을 배웠다. 연극을 배우지 이제 3년 차. 송파시니어극단의 반장이기도 하다. 발성 연습을 하고 감정 연기를 익히고 필요에 따라 춤사위도 배우며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다.





단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구성해 대본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거쳐 매년 연극 공연을 무대 위로 올리고 있다. 노년의 쓸쓸함, 황혼 육아, 노부모 부양 등 노년의 길목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이 무대에 오르니 연기가 어설프지 않다. 시니어극단 배우들의 연기에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를 헤쳐 온 사람만이 갖게 되는 깊이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배내희 씨가 연극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간 학교생활 하느라 하지 못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 민화대전에서 특선을 했고, 퇴직 후 쉬엄쉬엄 쓴 글로 수필가로 등단하기도 했다.

옷가게 사장님, 시니어극단 반장, 수필가, 화가, 그리고 이제 시니어 모델까지 지치지 않고 매진하고 있다.

“남들이 저에게 왜 그렇게 여러 가지 하며 정신없이 사느냐 하겠지만 전 지금 제 모습이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바쳐서 더 열정

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이 먹으며 하나둘씩 해보는 것뿐이에요.”

배내희 씨는 살면서 낮잠 한번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한다. 교사 시절 방학 때도 집에서 퍼져 있지 않고 뭔가를 배우러 다녔다. 요즘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학교에 갈 때처럼 밥을 짓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춰 입고 가게로 가거나 구민회관으로 발길을 돌린다.

올해부터 시니어 모델 일을 해야 하니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 같다. 광고 촬영의 경우 촬영 2시간 전에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참이다.

곱게 화장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헤에에엠’ 연습도 게을리 하지 않을 터다.

배내희 씨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시니어 기자 일에 도전해 볼 참이다. 얼마 전 모 방송사 시니어 기사를 뽑는 모집 공고를 보고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왜 떨어졌는지 분석을 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짜고 있는 중이다.

품위 있게 나이 들어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 갈망을 배내희 씨는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할머니 모델을 앞세워 화제가 되고 있다. 얼굴 가득 자글자글한 주름이 있음에도 당당히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여든한 살의 작가와 아흔넷의 디자이너, 일흔둘의 가수가 있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나이를 먹어도 늘 청춘을 고수하는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고 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약자가 아닌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노인임을 당당히 선언한 배내희 씨의 도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 85 공감사연 공감전화 이 결혼, 해야 하는 걸까요?
- 88 장웅의 단팥총 먹고 맞을래? 버리고 맞을래?
- 93 나의 연애시대 매캐한 저녁 연기 같은 추억 이야기
- 98 내 젊은 날의 공장 영자의 전성시대



공감사연 공감전화

이 결혼,  
해야 하는 걸까요?

애청자



저는 남자친구와 5년 이상 연애를 하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대학생 때 만났고 남자친구는 연애 중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결혼에 대해 말이 오가면서 고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저의 집에서 집값을 보태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해 들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결혼 비용에서 불필요한 것은 생략해서 집에 보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아버님은 제가 여전히 무직이므로 “전세비 정도 해오면 안 되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제 부모님께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비라는 말은 생략하고,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집값으로 보태길 바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아버님



이 ‘예식장은 좋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기에, 남자친구와 상의해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포함 1천3백만 원의 예식 패키지를 예약했고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유럽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전세보다는 매매가 더 경제적이라고 해서 아버님과 함께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3억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고, 남자친구 부모님께 집값으로 얼마를 보태주실 수 있느냐고 여쭙었습니다. 남자친구가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아버님이 1억 중에 일부를 집값에 보태주시고, 그 1억 중에 나머지는 결혼 경비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추 집값으로 1억 조금 넘는 정도가 마련되는 건데, 문제는 나머지 2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살 때는 보통 대출을 받는데 당분간 외벌이 살림이라 저는 대출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제 부모님이 1억을 보태주시기로 했고, 예단비 1천만 원에 신랑 예물비 1천만 원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또한 예비 시아버지께서 신혼여행비 및 예식비 등은 반반씩 양가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하셔서, 제 부모님은 식비와 신혼여행비도 반 정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는 저 보고 혼수도 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꼭 하란 소리가 아니다”라고 시작해서 ‘남자 시계는 어느 브랜드가 좋다, 가구는 어느 메이커가 좋다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결혼 후에 바로 아기를 가질 게 아니면 제가 일을 해야 한다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른 기혼자나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저는 사법대를 졸업하고 백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까요? 저는 계속 제 부모님께 죄송스럽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이건 뭔가 잘못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런 제 불만을 말했지만, ‘어쩔 수 없다. 다 부모님의 생각이며, 이런 상황이 싫으면 너의 부모님 돈은 받지 않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모 입장만 저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한다면 해야지!”라는 식으로 남자친구가 말할 때마다 적당한 선에서 끊어도 될 것을 저에게 시시콜콜 다 말하고 모든 부담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의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시는데요. 예비 시어머님은 그런 제 부모님의 일이 정년이 없다고 부럽다면서 받아들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받아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의 태도를 보며 제가 너무 어리석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고 피를 나눈 제 가족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던 생각이 들더군요. 제 친동생은 이 결혼을 안 했으면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저를 바보로 만드는 남자친구가 원망스럽습니다.

임용에 계속 떨어지면서 패배감과 늘어나는 저의 나이, 불확실한 미래,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걱정이 저를 우울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여자가 살아가기에 딸로서 살아가기에 힘들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네요. 이런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용의 단 · 필 · 층

# 먹고 맞을래? 버리고 맞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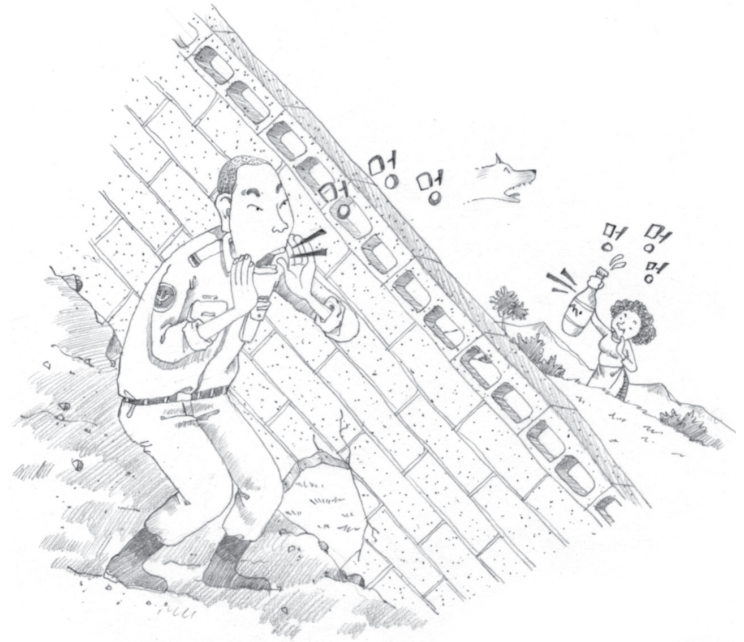
함경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983년 5월 중순경, 우리는 자대를 떠나 두세 시간을 걸어 근처 군단의 탄약고를 지키게 됐습니다. 통일로에서 철수하자마자 바로 탄약고 근무라 힘들 거 같았지만 일단 대대를 벗어나니 조금은 자유로울 거라 예상했지요. 그렇게 도착한 군단에서 군장을 풀고 탄약고 내의 한 묘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묵념을 한 뒤 하루일과를 시작했는데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 묘비는 일개 분대원이 불발탄 처리를 하다 폭발을 하는 바람에 선임하사를 비롯한 9명이 폭발과 모두 함께 산화가 되고 단 1명만 살아남았다고. 조금 무서운 감도 없지 않았지만 탄약고 생활은 각 초소 경계 근무를 위주로 했기에 견딜 만했습니다.

그때 제 계급은 일이 많아 일병이라는 작대기 하나로 식기 당번도 하고 제 밑에 있는 어리바리한 이병도 교육해야 하고 매일이 바쁜 생활이었지요. 그러던 중 나의 하늘 같은 한 달 고참이 저를 불렀습니다.

“함 일병, 오늘 고참들이 한잔 해야겠는데 니가 책임져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일병 님, 어디서 그 알코올을 구한답니까?”

“짜식, 야 거기 있잖아. 후문 앞에!”

“네? 거긴 담벼락만 있잖습니까?”

“아유~ 저 ‘대加里똥’ 어디다 쓰냐? (대加里똥은 군대시절 저의 별명입니다) 이리 와봐. 후문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럼 아줌마가 나올 거야.”

고참이 귀에다 대고 소곤댄 말이 ‘멍멍멍! 멍멍!’ 하면 일단 아줌마가 나온답니다. 그때 짹짹 돈하고 수통을 전해 주면, 아줌마가 수통에



알코올을 담아 오는데 그때 제가 다시 ‘멍멍멍! 멍멍!’ 나와도 된다는 암호를 외면, 아줌마가 수통을 건네준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다더군요.

“혹시라도 주변사관이 순찰돌 때 걸리면 우리 다 즉사다 즉사! 조심해라이~.”

이윽고 근무시간. 저는 조이는 가슴을 추스르며 근무에 투입되었고 초소에 근무 교대를 하기가 무섭게 짚어냈죠. “멍멍멍! 멍멍!” 그런데 소문의 아줌마가 안 나오는 겁니다. 혹시 내 목소리가 작나 하고 목소리를 높여 “멍멍멍! 멍멍!” 다시 짚었는데요. 진짜로 아줌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짹짹 고참이 준 돈과 미리 준비한 수통을 건네 주고 껌짝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수하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주변사관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지요. 긴장감 속에 들리는 저벅저벅 군화 소리 그리고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호!” 차례대로 수하를 요구하더니 소대장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마!”

“군무중 이상무!”

“그래. 근무 잘 서고 아직은 싸늘하다. 옷은 잘 끼워 입었나?”

“네! 잘 입었습니다!”

“알았다. 수고해라”

“네 알겠습니다! 백마!”

그렇게 소대장님이 가시고 군화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저의 의무를 떠올리곤 다시 짚었습니다. “멍멍멍! 멍멍!”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줌마가 수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조심들 해. 우리도 걸리면 욱떡어. 알았지?” 하고는 총알처럼 사라지셨고 저는 그날 임무를 완수한 후 뿌듯한 마음으로 내무반에 입성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신의 물방울, 입이라도 대봤냐고요? 아뇨. 제 눈 앞에서 고참님들의 입속으로 들어가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시간이 흘러 꽃피는 오월의 봄이 되었습니다.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지난번과 같은 근무시간, 역시나 지난번과 같은 후문, 그런데 오늘은 수통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미션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중대 본부에 들어가서 근무투입신고를 마치고 저벅저벅 근무지로 투입이 되었고, 근무 교대를 하면서 저는 후문에서 “멍멍멍! 멍멍!” 아줌마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수통은 아줌마의 손으로 옮겨 갔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저만치 수하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순간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보초 앞으로!”

다가선 순찰자는 우리 부대 소대장님이셨습니다.

“함 일병, 힘들지?”

“아닙니다.”

“그래, 경계근무에 열중하고 수고해라.”

하며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소대장님 군화 소리가 멀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군견이 되어 “멍멍멍! 멍멍!” 울부짖었지요. 그 소리에 아줌마는 수통 두 개를 들고 오시고 저는 짹짹 받아서 하나는 제 수통피에 또 하나는 근무파트너 박 이병 수통피에 넣었죠. 그런데 잠시 후 뒤편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좀 전에 지나가신 소대장님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야! 함 일병, 방금 그 멍멍이 소리 뭐야?”

“예? 무슨 소리 말씀입니까?”

“좀 전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던데?”

“예, 소대장님. 그 소리는 저기 앞집 개가 짖은 겁니다.”

“그래, 알았어. 수고해라.”

하면서 초소를 떠나는가 했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돌리면서

“야! 함 일병!”

“네! 일병 함OO~.”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갑자기 눈을 번뜩이는 소대장님은

“함 일병 수통 쥐봐!”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아~ 이제는 죽었다’ 하면서도

“아닙니다. 술은 없습니다!”

“그래? 수통 내놔봐!”

그 한마디에 수통을 건네주고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수통을 받으신 소대장님은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으면서 “함 일병, 너도 그러냐? 너만은 믿었는데... 어쩔래? 먹고 맞을래? 버리고 맞을래?” 그 말에 저는 오로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만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소대장님이 “함 일병! 먹고 맞을래? 버리고 맞을래?” 하시기에 결국 저는 ‘버리고 맞을래’를 택했고 내무반에서 기다리고 있을 호랭이 같은 고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졸졸졸 피 같은 술을 쏟아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요, 인자하신 소대장님께 버리고 맞지는 않았답니다. 암튼 그때 다른 소대장님에게 걸렸다면 버리고도 뒤지게 혼나고 거기에 얼차려까지, 다음날 아침이 지옥이었겠지요? 백마부대 9사단 28연대 4대대 14중대 전우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배~애~액~마!

 나의 연애시대

## 매캐한 저녁 연기 같은 추억 이야기

황숙 |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저는 오늘, 꼭 저녁밥 짓는 시골집 마당의 매캐한 연기 같은 아스라한 추억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경상도 사람, 그것도 상주 사람과 전라도 목포 죽교동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다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저와 그녀는 얼굴도 모른 채 이름 하나만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신문을 보는데요. 당시 <독서신문>이라는 곳에 그녀의 글이 실렸습니다.

‘꽃잎이 흐르는 길을 따라 떠난 여행길. 꽃은 피고 시절은 아스라이 흘러가고, 길 위에서 있는 나도 무르익어 간다.’

이름은 김유경. 어느 지역을 여행하고 와서 쓴 시가 손바닥 크기 정도의 자그마한 지면에 실렸는데요. 저는 그 시를 보고 불현듯 ‘아,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츰 ‘나는 이 사람과 살아야 한다’



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무척 형편이 어려웠기에 꽃무늬가 들어 있는 폼나는 편지나 예쁜 편지봉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얇은 미봉지에 그저 '사랑합니다'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한 가지 생각에 밤새 설레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밤을 지새니다. 누구일까? 당신은 누구일까? 내 마음에 사랑을 심고 떠난 당신...〉

이렇게 불면 날아갈 듯한 아주 얇은 종이에 쓴 편지를 편지봉투가 뽐뽐하게 터질 듯이 담고는 겨우겨우 밥풀로 붙여서 보냈답니다.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 달에도 수십 통씩 막무가내로 보냈지요. 어찌 보면 얼굴도 모르는 경상도 강촌의 남자에게 별 감흥은 없었을 테고, 하도 사랑한다고 하니 연민의 정이 느껴졌던 걸까요? 두 달 정도 뒤에 그녀에게 답장이 왔어요.

〈숙에게! 처음 편지를 받고, '황숙'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통, 두 통, 세 통... 차츰 편지를 받고 보니 남자 분이시더군요. 좋은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 유경 드림〉

〈유경 씨의 시에 비하면 부끄럽습니다. 경상도 하고도 강촌이라 답장 쓰길 꺼리시는 줄 알았는데, 답장 감사합니다. 편지를 계속 적어 보내도 괜찮겠지요? 우리가 인연이라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겠지요. 날이 춥습니다. 두루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 숙〉

우리는 몇 해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러다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광주기갑학교에 배치를 받았고 후반기 교육을 다 마칠 무렵 내무반에서 개인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방송이 나오더군요.





“이병 황숙! 면회다! 지금 바로 위병소로 오도록! 이상!”

그날은 거짓말 조금 보태 눈이 허벅지까지 온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곳까지 면회 올 형편이 안 되었기에, 저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위병소로 나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면회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병 황숙! 면회 왔다니까, 왜 반응이 없나? 한 아가씨가 아침부터 기다리는데, 5분 내로 오지 않으면 돌려보낼 테니 그리 알도록, 이상!”

저는 위병소까지 발이 안 보이게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진짜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기른 여자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숙씨… 구나… 저예요. 김유경…”

“어… 여긴 어떻게… 왔어요… 눈도 이렇게 오는데…”

몇 해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우리가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뺨뺨머리에 까맣고 당황해서 말도 못하는 촌놈이었고 그녀는 세련되고 예쁘고 톡톡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마치 나는 바보 온달 같고 그녀는 평강공주 같았어요. 꿈에 그리던 그녀와 만났지만 저는 어쩔 줄 몰라 멀뚱히 그녀만 바라보다가 그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녀의 편지는 푹 끊겼습니다.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애를 태우며 자대생활을 하던 중 제대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숙!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면회를 다녀오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황하는 숙의 모습에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싶었어요. 하지만 숙의 오랜 편지에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어진 사랑은 일사천리로 깊어졌습니다. 전역을 하고 가까 머리를 한 상태로 저는 그녀가 선물한 미군 작업복을 검게 물들여 입고는 경상도 촌놈의 깡 하나만 밟고 전라도 목포 유달산 밑에 있는 동네로 쳐들어갔습니다. 새벽 차를 타고 갔는데, 도착하니 해가 서산에 걸렸더군요. 어머님께서는 마실을 가셨는지 안 계셨고, 소식도 없이 들이닥친 제 모습에 그녀는 무척이나 놀랐는지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허락받으러 왔어요. 유경 씨랑 혼인하고 싶어서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황당했을 겁니다. 얼마 뒤 어머니께서 돌아 오셨고 저를 아래위로 훑어보시더니 다락방에 고이 넣어두신 빨강색 솜이불과 파란색 솜이불을 내려놓으시면서 저에게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기왕 온거니께~ 여기서 보름정도 자고 가슈~.”

나중에 들어보니, 혼기가 꼭 찬 딸을 찾아온 사내를 보고 제대로 된 신랑감인지 두고두고 살펴보기 위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전역하고 1년 뒤 저는 그녀와 남의 집 자취방에서 변변한 장롱 하나 없이 신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즈음에 시내 지인의 사진관에 가서 사모관대를 빌려 입고 사진 찍은 게 전부입니다.

지금은 저를 믿고 잘살아 온 나의 아내 김유경 씨가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우여곡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젊은 생각이 있고 내일이라는 설렘이 있으니 감사하며 살뿐입니다.

내 젊은 날의 공장

## 영자의 전성시대

도영자 |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로



가을이면 친정엄마 모시고 밤 주우러 한 번씩 가는 제 고향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침에는 해가 늦게 뜨고 저녁이면 일찍 지는 두메산골이에요.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1남 5녀로 딸 부잣집이었죠, 그 중 둘째가 바로 저입니다. 첫째인 언니는 첫 자식인데다 얼굴도 예쁘다보니 사랑을 독차지했고 제 밑으로 동생들도 예쁘고 귀여워 동네사람들의 귀염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둘째인 저는 허약하고 못난이라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도 부모님이 하신 게 아니라 동네일을 맡아보는 동장 아저씨께서 하시는 바람에 언니와 저를 생일은 다르게 출생년도는 같게 올려놨답니다. 지금도 고치지 못하고 언니와 저는 쌍둥이 아닌 쌍둥이로 되어 있습니다. 식구는 많고 살림은 넉넉지 않아 봄이면 보릿고개를 피할 수가 없어

‘갱식이 죽’이나 고구마로 한 끼를 때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언니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비단을 짜는 공장에 돈 벌러 간다며 대도시로 떠났지만 부모님이 보고 싶어 견디지 못하고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언니와 3살 터울인 저 또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구에 있는 직물공장에 취업이 되어 하루 12시간 힘든 2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근한 날은 아침에 퇴근할 때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하기 일췌였어요.

기숙사는 한 방에 4명씩 쓰게 되어 있었지만, 2명씩 2교대를 하다 보니 항상 방에는 2명만 있게 됐는데요. 기숙사로 가서 한 방을 쓰는 동료와 수다 좀 떨다가 잠을 청해보지만 낮에 잠을 자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럭을 몰고 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스피커 소리가 제일 큰 훼방꾼이었습니다. 점심도 굶은 채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벌써 해는 저물어 야간근무를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 버리곤 했답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직물 짜는 기계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요란해 옆 동료와의 대화도 소리를 질러대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휴식시간은 밤 12시에 10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엔 이 구석 저 구석 아무 곳이나 앉아서 쉬다보면 깜빡 잠이 들어 반장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깜짝 놀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일어나 일은 하지만 잠이 쏟아져 공장 기계들을 살피러 돌아다닐 때는 거의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다니죠. 그러다가 실꾸러미 감는 기계에 손을 잘못 넣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오면 머리카락이며 눈썹은 실과 실 먼지가 하얗게 쌓이고 붙어 하얀 눈사람 같았어요. 동료들과 서로 웃으며 털어주고 위



로하며 생활하다 보면 정말 피붙이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정이 생겨 누가 몸살이 나거나 아프면 서로 보듬어주고 약도 사다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곤 했습니다.

야근하는 날은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친구들과 가끔씩 외출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외출이래 봤자 공장 주변에 있는 분식집에 들르는 것이 다였는데 우리가 자주 갔던 분식집에서 파는 고구마튀김이 참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들 고구마튀김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나는 침만 꼴깍 삼키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90프로를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기 때문에 군것질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분식집에서 외상으로 먹고 월급날이면 월급의 반이 분식집 외상값으로 나가는 어떤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 다’라고 하셔서 그 말의 의미를 몰랐었는데요. 친구의 외상값을 보면서 어렵풋이나마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힘들 속에서도 명절이 다가오면 다들 부모님과 형제들 선물을 마련했기에 세 평 남짓한 작은 기숙사 방은 선물들로 가득 찬답니다. 선물꾸러미들을 양손에 들고 고향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설레고 좋았죠. 하늘을 나는 기분이 그러했을까요? 그렇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해 버스를 몇 번 같이타고 비포장 길을 가다 보면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안은 손잡이도 없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몸 가누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멀미까지 심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따라 20여 분 걸어가면 눈을 감아도 눈에 선한 고향 집에 도착합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은 꿀맛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살림이라 늘 콩보리밥을 해 먹었는데요. 커다란 가마솥에 보리쌀을 밑에 깔고 쌀 한주먹을 중앙에 얹어 그 쌀밥은 할머니와 아버지께 드리고 보리밥은 엄마와 저희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어린 둘째딸이 객지에서 고생한다며 명절에 집에 온 저에게 쌀밥을 퍼 주셨는데 눈물이 나서 차마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할머니와 형제들이 한방에서 자고 저는 부모님과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문득 잠이 깰 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말씀하시더군요.

“야 손바닥 좀 보이소, 손바닥에 굳은살이 배겨 나무껍질 같네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전 언니처럼 부모형제가 그림다고 참지 못하고 귀항하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참고 견뎌 돈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리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객지생활하면서 얼었던 발이 별경게 붓고 가려워 굼었더니 할머니께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주물러 주며 “아이고 우리 영자 발이 얼어서 우짜노~” 하고는 눈물지으셨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명절 며칠을 가족들과 보내고 또 다시 일터로 되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벌써 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어제 일 같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졸업장이 많은 걸림돌이 되었기에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졸업장까지 받았답니다. 제 인생 이만하면 박수받아도 되죠!



# 비밀여행으로 시작된 연애

그림 | 김곡, 우영미

※ 〈여성시대〉 가족 오상훈(경기도 사흥시)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결혼 후 10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울릉도에 다시 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애시절은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고  
중종 친구 부부와의 술자리에서  
즐거움 애것거리가 되곤 한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어준 덕분이다.





## 식탐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요사이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게시판에 식탐이 많은 아이들에 대한 사연이 자주 올라옵니다. 요즘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아이가 잘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스럽다고 좋아하시죠. 주로 입이 짧은 아이, 가려먹는 아이가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체중보다는 과체중과 비만이 더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체형은 나이를 먹어도 변치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식습관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면 성인기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과식하는 아이들은 성인기에도 비슷한 식사 습관을 보이고 결국 비만과 대사성 질환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반복

적으로 과식하는 식습관이 있다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교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돌에서 다섯 돌까지의 아이가 식탐이 심할 때는 두 가지 경우를 의심합니다. 첫째는 정서적인 허기를 식욕으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음식, 특히 탄수화물은 섭취 시 빠른 속도로 만족감을 줍니다. 아이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유를 잘 찾지 못합니다.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은 훨씬 다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즐거운 활동이 부족하고 지루할 때, 원하는 욕구를 채우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때, 어떤 사건의 여파로 불안감에 시달릴 때 등등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좋은 기분에 시달릴 때 아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대개는 짜증을 부려 부모의 관심을 끌거나, 공격적이고 거친 행동을 하고 가끔은 자기 신체를 자극하는 행위를 합니다. 손가락을 빨고 배꼽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시도하죠. 일부 아이는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해서 부모를 놀라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 먹는 행위를 통해 기분을 바꾸려 드는 아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 울면 젖을 물려주거나 음식으로 짜증을 달랜 아이들은 음식을 중요한 스트레스 해결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포만감과 탄수화물 공급을 통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학습된 것이죠. 대개의 경우 부모에 의해 학습되지만 요즘은 집에 음식이 많이 널려 있어서 일부 아이들은 스스로 이런 방법을 깨닫기도 합니다. 심심하고 지루해서 기분이 안 좋아질 때 간식거리를 먹어서 스스로 기분을 달래는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식욕 자체가 강한 아이입니다.** 다른 특성과 마찬가지로 식욕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큼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죠. 식욕이 강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음식을 즐겨 찾는데, 우리 문화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유아기는 적절한 식사량이 얼마인지 설정되는 시기이기에 이 시기에 반복적으로 과식을 하면 아이는 과식을 적절한 식사량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었음에도 늘 더 먹으려고 하죠. 게다가 이런 상황을 주변의 어른들이 “복스럽다”, “잘 먹어서 예쁘다”고 자주 반응을 해주면 과식 성향은 더욱 강화됩니다.

일단 과식 성향이 체질화되어 있으면 이것을 바꾸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아픔 없이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변화는 어느 정도 아픔을 동반합니다. 특히 아이의 나이가 많아 안 좋은 습관이 유지된 기간이 길다면 교정하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출발은 규칙적인 절제된 식생활입니다. 이제는 하루 식단을 정해서 그에 따라 규칙적으로 식사와 간식을 먹게 부모가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먹지 않도록 하고 배가 고플 때만 먹게 합니다. 배가 부르면 그만 먹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간식도 많이 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자와 빵, 청량 음료나 주스 등은 아예 사두지 않는 편이 좋고 과일이나 우유, 요거트 등은 먹는 시간과 양을 정해 둡니다. 이런 원칙은 아이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지켜야 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TV를 보면서 계속해서 과자를 집어 먹는다면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야식을 먹는 식의 식생활을 피해야 합니다. 조부모들은 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간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어른이 변하지 않고 아이가 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깐요.

아이의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특히 생후 초기 몇 년간의 오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따라서 변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마디 타이름이나 놀리는 말로는 기분만 나빠질 뿐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들어 부모가 노력하면 아이는 변합니다.

**참고로 두 돌 이전의 아이들의 과식을 막기 위한 지침을 첨부합니다.**

1. 배가 고플 때만 먹도록 한다. 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만 먹지 않습니다. 지루하거나 외로울 때, 허전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TV 등을 볼 때도 먹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포만감으로 해결하려는 것, 장시간 한자리에서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전부리에 손을 대는 것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배고픈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배고픔을 느끼면 매우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식사는 배고픔을 느낀 후 해야 합니다.

3. 배가 부르면 그만 먹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엄마들 중에 아이를 더 키우고 싶어서, 또는 자주 젖이나 분유를 주지 않기 위해 과도한 양을 수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에게 과식하는 습관을 심어주게 됩니다.

4. 아이가 그릇을 깨끗이 비우도록 고집하지 마십시오.

5. 젖병이나 우유병을 늘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십시오. 병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 음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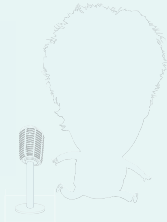
6. 음식을 이용해 지루함을 달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장난감을 만들어주세요.

7. 카시트나 유모차를 탈 때는 먹을 것을 주지 마십시오.

8. 잘한 일에 대한 상을 줄 때 음식으로 주지 마십시오.

누가 소박한 밥상 좀  
차려줬으면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2015년 첫 공연은 구리시에서 시작했다. 공연 전에 매진 소식은 오랜만에 듣는 기쁜 소식. 최근 6, 7년 동안 뮤지컬 준비하고 연습하고 막을 올리며 보냈기에 콘서트는 오랜만이였다. 작년 12월 생전 처음 무대에 서는 듯 긴장은 또 얼마나 되며, 한겨울인데도 머릿속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그 바람에 뒷덜미에 한기가 들어 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감기가 든다.

무대 뒤편의 천장은 높아서 15~20m 가량 될 것이다. 아무리 객석의 난방장치가 돌아가도 무대 뒤편에선 이상한 바람이 분다. 썰렁한 바람이... 겨울이 지나니 다행히 그런 한기는 가셨다. 그리고 음향도 좋았다. 좋은 공연은 그날 객석을 메운 관객들이 만들고 무대에서는 바로 객석 위의 허공과 소통을 한다.

구리시에서의 공연은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희한함이 있었다. 객석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동도 없이 무대를 향했고 고스란히 그 시선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객석에 내려가서 싱어롱하니 마이크를 갖다대는 이들과 열창이었고, 재밌는 얘기에 대한 반응도 여고생처럼 깔깔대며 웃었다.

이럴 수가! 2부로 접어들면서 공연 분위기가 더 무르익고 급기야는 내 뒤에서 연주하는 연주팀들이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늘

함께하는 연주인들의 그런 경우는 참 드물다. 그래서 더 뜻 깊었다.

4월 말에 발표 될 새 노래 역시 인터넷상에 디지털 싱글로 소개될 터인데, 준비도 만만찮고, 일이 제법이다. 포스터 사진 촬영 하나만 해도 일단 의상 담당 코디가 우리 집에 와서 옷방에 걸린 옷을 뒤져가며 촬영에 맞는 옷을 챙겨 내는데, 안경부터 신발, 셔츠 안에 받쳐 입을 민소매 내복 색까지 깔 맞춰 세팅을 하느라 한 3시간가량 걸린다. 이튿날 여성시대 생방송 끝내면 분장을 받고, 미장원에서 머리 드라이하고, 촬영장까지... 이동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분장부터 도착까지 약 3시간가량 걸린다.

촬영도 쉽지 않다. 턱을 당겨라. 시선은 어디로 향해라. 웃어라. 가만있으니까 표정이 무섭잖나! 등등 주문이 쏟아진다. 서너 시간 그러고 나면 녹초가 된다.

집에 오면 그냥 뺏고 싶은데, 우렁각시가 있어 맛난 된장찌개. 나물 두어 가지, 생선 한 토막 구워 놓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 무거운 짐 꺽고 들고 들어오면, 남편이 하는 말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배고픈 걸 참고 기다려준 게 기특하고 고맙다 해야 하나? 널 모레 일흔이 되는 남편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요리를 배워, 내게 밥을 차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따뜻한 밥에 맑은 국 또는 찌개와 나물 두어 가지... 무얼 더 바라겠는가?

나보다 다섯 살 손위시누님은 살림을 맏게, 알토란 같이 꾸리신다. 그런데 이제는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좋다신다. 2, 3년 전만 해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하지만 나 역시 환갑을 넘기고 나니 그 말에 끄덕인다. **누가 나를 위해 소박한 밥상을 차려 준다면 좋겠다. 돈 주고 사먹는 뻔한 맛 말고 맛깔 지고 옛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두레소반에 차려낸 일식삼찬,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세 여자



강석우 | 여성시대 진행자

다은아, 오늘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까? 남자는 대부분 잘난 척 되게 하지. 그건 아마 본인이 능력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 거야. 그대를 보호하고 잘살게 해줄 능력이 있거든 하는 표현일 거야. 좋게 얘기하면... 그런 반면에 남자는 좀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나부터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무엇과 맞닥뜨렸을 때 그쪽이 맞다고,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외면하는 게 더 많아.

말 안 통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마주 본 상태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뒤돌아보면 그곳에 그 남자의 여자가 그 여자의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게 돼. 원 둘레를 따라 멀어진 것처럼. 서로 뒤돌아보면서 그 남자와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세 트라는 걸 알게 해주는 역할은 대부분 여자의 공(功)인 것 같아.

내가 라디오 진행할 때 가끔 오는 문자인데 ‘남자는 엉덩이 툭툭 쳐주면 돼요’ 하는 문자인데 무슨 소리인지 알까! 그래 알 수도 있겠다. 남자는 젊든 늙었든 똑같았으니까. 이상한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같이 사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

아빠 참 행복한 사람이야. 너도 잘 알겠지만 아빠는 여자를 잘 만난 것 같아. 먼저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인자한 어머니를 만났고 다은이

라는 예쁘고 착한 딸을 만났고 끝으로 무엇보다 이해심 많고 양보심 많은 아내를 만난 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야. 다은아, 너도 엄마처럼 네 남자의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많이 봤지? 아빠 속이 틀어져서는 안 그런 척했지만 다 보였을 것이고 다 느꼈겠지? 그럴 때마다 엄마는 짜증내지 않고 아주 간곡한 소리로 “풀어, 여보” 했고 나는 “뭘?” 하면서 화난 척 투명스럽게 내뱉는 걸로 속의 틀어진 심사를 토해 내고 ‘정상 상태’로 돌아왔잖아. 서로 화가 난 상태여서 남자의 엉덩이를 툭! 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닐 거야. 깊은 이해심과 가족들과 가정을 위한 양보심이었겠지. 아빠가 많이 화가 났을 때, 물론 나는 방방 뜨기보다는 꼭 누르고 창밖으로 보곤 하지. 그때 엄마는 조용히 다가와서 내 팔짱을 가만히껴 주지. 그 순간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며 격했던 내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했었지.

다은이 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길 바래. 엄마는 아빠를 바꾸어버린 대단한 사람이야. 거친 말이나 몰상식한 행동 그리고 뭐랄까 하여튼 예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단다. 하지 말란 얘기 한 적 없고, 얼굴 찡그린 적 없지만 아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걸 보면 원래부터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없는 것 같아. 상대에 따라 선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일부러 나쁜 모습을 보이고 싶게 만들기도 하는 걸 거야.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부딪칠 일은 미리 피해가고 혹시라도 다투어서 분위기가 가라앉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여자가 되길 바랄게. 엄마처럼.** 한 여자를 생각하면 눈물 나고, 한 여자를 생각하면 기분 좋고, 또 한 여자를 생각하면 고맙고 그래.



##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물의 철학》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일상에서 익숙한 사물들은 그저 눈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쳐지나가기 쉽다. 그러나 그 사물들에는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무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저자 함돈균 교수는 사물을 달리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일상의 사물을 다르게 볼 때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때 비로소 나의 삶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 교수의 《사물의 철학》은 이렇듯 유연한 시선으로 사물을 대하고, 그 사물로 채워진 세상을 조금 다르게 살필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시스루에서 포스트 잇까지 887개의 사물들을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며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물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삶에 대한 다른 시선으로 확장되어 감을 느끼게 된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운다. “이론을 동원하는 글을 쓰지 않을 것. 쉽고 구체적인 것. 지역·세대·계층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할 것.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고의 성장을 돕는 글일 것.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점검되지 않고 통용되는 뻘한 생각,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사고의 관성을 중단시키는 ‘낮선 글일 것.’ 이러한 원칙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물에 대해 자신의 유연한 생각을 더 만들어주는

열쇠가 된다. ‘자동문’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오늘의 바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명상이다. 본래 자동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전 세계의 최대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마천루에서 1층 로비의 입구로 만들어진 기술과 산업의 상징물이었다. 그러던 자동문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익숙하게 자리 잡았으며, 우리는 종종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가슴을 때리는 경종을 울린다. 본래 문은 사용하지 않으면 벽이다. 하지만, 그 벽처럼 생긴 문을 통해 다른 세상으로 가면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몸을 통해 문을 열게 된다. 예쁜 아기가 잠든 방의 문을 열 때면 아주 사랑스럽게 조용히 문을 연다. 마치 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보다도 소중한 아이를 보고 싶다는 애뜻한 마음이 그 문조차도 그렇게 여기게 된다. 수업에 지각한 학생은 선생님께 미안하면서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문을 연다. 회의에 들어서며 화가 난 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듯 과격하게 문을 열고 거세게 닫는다. 문을 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 행동에 담게 된다.

하지만, 자동문은 항상 똑같다.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은 그 자동문을 통해 모든 일상을 상대적 개념이나 비교 관찰의 느낌이 아닌 수단과 기능으로만 판단하는데 익숙하게 된다. 저자의 일성은 그래서 독자들을 깨운다. “세월호 문제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다. 자동문이 만든 일상이다.”

사물은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문학은 그 이야기를 확인시키고 그로부터 더 나은 판단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물의 철학 | 함돈균 저 | 세종서적

